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제1151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삼성생명 주식 600만주 매각

신세계 정용진 6500억원 현금 확보



블록딜 성사 면세점 사업 탄력

신세계와 이마트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6500억원이 넘는 현금화에 성공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일 신세계와 이마트가 장 종료 직후 삼성생명 보유지분 60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추진해 성사됐다.

이날 매각된 주식 수는 신세계 300만주(1.5%), 이마트 300만주(1.5%) 규모다.

한 주당 가격은 전일 종가(11만6500원) 대비 6.27% 할인율이 적용된 10만9200원이었다. 이로써 신세계와 이마트는 총 6552억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이번 블록딜을 단독으로 주관한 제이피모간증권은 당초 3.4%에서 6.9%의 할인율이 적용된 10만8500원에서 11만2500원 밴드를 제시했다. 결국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됐다는 이야기다.

IB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중심으로 삼성생명 지분 블록딜 물량이 성공적으로 매매됐다"며 "이번 재원 확보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추진하는 면세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며 "매각 대금의 정확한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최근 그룹의 20년 숙원인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정용진〈사진〉 부회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29만3500주 가운데 4만8500주를 매각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평균 주가(주당 124만2000원)를 감안하면 약 602억4000만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후임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5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건희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문화재단도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건희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2016년 8월 27일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이재용 신임 이사장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삼성그룹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의지를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1982년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재단으로 설립돼 1991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과 삼성서울병원, 삼성노블카운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본사인사

이사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임철순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75% 동결

데이터 뉴스 Data News

삼성전자 시총순위 3년 연속 하락

전 세계 정보기술산업(ICT) 기업 중 삼성전자 시가총액 순위가 10위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사업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선 탓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총은 이달 1일 기준 189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말 시가총액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6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2013년 말 7위(1892억 달러), 2014년 말 9위(1780억 달러)에 이어 이달에는 10위에 그쳤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글로벌 ICT 기업 시가총액 순위

- 1위 애플 (7428억8000만 달러)
- 2위 마이크로소프트 (3947억4000만 달러)
- 3위 구글 (3715억4000만 달러)
- 4위 차이나모바일
- 5위 페이스북
- 6위 버라이즌
- 7위 알리바바
- 8위 오라클
- 9위 텐센트
- 10위 삼성전자 (1897억 달러)

※ 출처: S&P 캐피탈 IQ

하루 한생각 訓民正音 (훈민정음)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한글
▶ 12면


연예기획 ▶15~17
연예·스포츠 스타 2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조현준 사장 ▶9


주진형 대표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CSR 국제컨퍼런스' 뜨거운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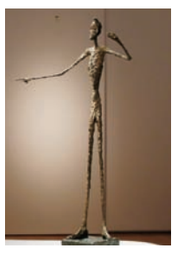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가 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철 CJ그룹 CSV경영실 상무가 'CJ그룹의 글로벌 OnlyOne CSV경영'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매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제행사다. ▶ 관련기사 6면

노진환 기자 myfixer@

"미술시장 탈세·돈세탁 온상" 닥터 둠의 경고

크리스티 경매 사흘간 낙찰금액 총 1조5400억원 슈퍼리치 새 투자처로 주목 과열 조짐에 '거품론' 일어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이번 주 실시한 뉴욕 경매에서 막대한 돈이 오가면서 미술시장 거품론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가 지난 11~13일 사흘간 뉴욕에서 실시한 경매 낙찰금액이 총 14억1003만 달러(약 1조5400억원)에 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흘간 경매장을 찾은 사람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NYT는 단일 경매회사 주간 미술품 낙찰총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사진 왼쪽〉이 1억7937만 달러에 낙찰돼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12~13일 경매에서도 러시아계 미국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NO.10'이 8190만 달러에 낙찰되는 등 고가 판매 행진이 이어졌다.

미국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반지'가 4169만 달러,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사진 오른쪽〉는 1억4130만 달러에 각각 낙찰됐다. 크리스티 경매는 15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크리스티의 경쟁사인 소더비의 12일 뉴욕 경매 낙찰금액도 3억7970만 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크리스티 판매액이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부호들이 미술품 경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피카소의 작품인 '알제의 여인들' 경매가의 100배가 넘는 자산, 즉 179억 달러를 보유한 슈퍼리치는 5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경매에 나왔던 1997년 당시보다 다섯 배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부양 기조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증시와 채권 등 자산가격이 오르자 돈이 넘치는 슈퍼리치들이 새 투자처로 미술품 시장을 주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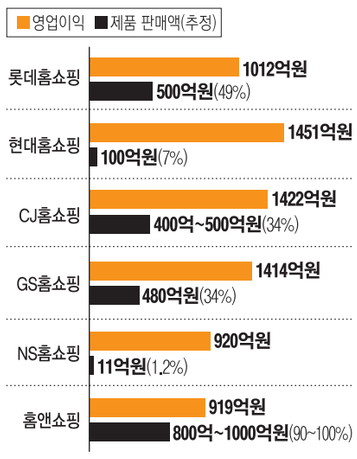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미술시장이 탈세와 돈세탁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백수오 쇼크' 홈쇼핑 전액 환불 땐 작년 영업이익 절반 통째로 날릴판

홈쇼핑 2014년 영업이익과 백수오 제품 판매액(추정)

( )는 백수오 제품 판매액 전액 환불시 전년 영업이익 대비 비중



국내 홈쇼핑업계가 '삼중고'에 휘청거리고 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과징금 폭탄을 맞았고 최근에는 '백수오 환불' 논란까지 겹쳤다.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전액 환불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작년 영업이익의 절반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홈쇼핑업계 각사가 밝힌 백수오 제품 누적 판매(매출) 규모는 △롯데홈쇼핑 500억원 △현대홈쇼핑 100억원 △CJ오쇼핑 400억~500억원 △GS홈쇼핑 480억원 △NS홈쇼핑 11억원이다. 홈앤쇼핑은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800억~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전액 환불에 따른 영업 타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전액 환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영업이익(2014년 기준)에서 백수오 환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롯데홈쇼핑 49%(영업이익 1012억원) △현대홈쇼핑 7%(1451억원) △CJ오쇼핑 34%(1422억원) △GS홈쇼핑 34%(1414억원) △NS홈쇼핑 1.2%(920억원) 수준이다.

판매 규모가 적은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제외하고는 한 해 영업이익의 약 34~4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홈앤쇼핑의 경우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 홈앤쇼핑의 작년 영업이익이 919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이익의 전부를 보상액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과징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CJ오쇼핑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13.4%, 7.9% 줄었다. GS홈쇼핑은 판매액과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14.2%와 1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2.1% 감소했고, 현대홈쇼핑도 영업이익이 21.7% 줄었다.

이선애 기자 lsa@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 경영권 위기 오나

보유 회사주식 88% 담보잡혀 대출 상환 못하면 물러날수도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의 90%가량을 담보로 잡혔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떨어져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 경영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3일 IBK투자증권과 맺은 약 1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담보 주식 수는 종전 55만주에서 407만4711주로 늘어났다. 만기일은 내달 22일로 동일하다.

이번 주식담보대출 계약 내용에서 담보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인해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며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추가 담보를 잡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IBK투자증권과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6일 내츄럴엔도텍의 종가는 4만7850원이다. 이달 13일 종가는 1만1050원으로 주가가 76.9%나 떨어졌다. 김 대표가 보유 중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은 462만4711주(지분율 23.92%)로 담보로 잡힌 주식은 김 대표 보유 주식의 88%에 이른다. 결국 담보 주식을 잃을 시 21.07%의 지분이 사라져 김 대표에게 남는 지분은 2.85%에 그친다. 현재 김 대표는 내츄럴엔도텍의 최대주주로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할 때 29.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담보 주식의 가치를 통상 60%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6630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 담보를 해야 하지만 김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대부분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추가 담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지주사 10곳 중 6곳 부채비율 감소…웅진홀딩스 185%P 뚝

상장 지주사 51곳 재무구조 분석

한라 -108%P·유수 -49%P로 뒤이어
증가한 곳도 재무안정성 영향은 없어
"지주사 흔들리면 그룹 전체 위기" 인식
총자산은 '증가' 34개사·'감소' 17개사

국내 상장 지주사 10곳 중 6곳 이상의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사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주사(중간지주사 제외)는 51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지주사 중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상장 지주사 51곳 중 31곳의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웅진홀딩스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146.9%로 전년도 말 대비 186.0%포인트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준을 벗어났다.

부채비율 감소 상위 10개사

회사명	부채비율(%) 2014년	2013년	증감치
웅진홀딩스	146.90	332.89	-185.99%p
한라홀딩스	48.71	157.37	-108.66%P
유수홀딩스(옛 한진해운홀딩스)	53.87	103.20	-49.33%P
한진칼	24.91	54.08	-29.17%P
풀무원	81.36	109.75	-28.39%P
AK홀딩스	8.83	24.11	-15.28%P
평화홀딩스	69.65	81.91	-12.26%P
일진홀딩스	1.89	12.59	-10.7%P
대성합동지주	17.24	27.53	-10.29%P
한국전자홀딩스	1.98	12.11	-10.13%P



이어 재무건전성이 확연하게 달라진 곳은 한라홀딩스다. 한라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013년 157.4%로 국내 지주사 중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48.7%로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수홀딩스(옛 한진홀딩스도)는 지난해 말 기준 53.9%로 전년과 비교해 부채비율이 반토막 냈다.

한진칼과 풀무원, AK홀딩스도 부채비율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4.9%로 전년도 말 54.1%와 비교해 29.2%포인트 하락했다. 풀무원은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28.4%포인트 떨어지면서 100% 미만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부채비율이 상승한 상장 지수사 대부분도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상승한 20곳 중 7곳은 무차입 경영을 하는 곳으로 부채비율 상승폭이 전년과 비교해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대표 기업집단들이 지주사의 재무안전성이 흔들릴 경우 그룹 전체의 가치하락과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상장 지주사들의 개별 재무제표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9조5959억원으로 전년 60조1763억원과 비교해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지주사 중 자산이 증가한 곳은 34개사이며 감소한 회사는 17개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 지주사 중 개별 기준 자산이 1조원 이상인 곳은 13곳으로 전년도와 같았다. 이는 한진칼이 지난해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웅진홀딩스는 자산 10조원에서 이듬해 7984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주사별로 보면 한진칼의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진칼의 자산은 2014년 말 기준 1조5310억원으로 전년도 8313억원과 비교해 84.2% 증가했다. 한국콜마홀딩스도 지난해 말 기준 2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의 자산증가율을 보였다. 아세아도 28.9%로 국내 상장 지주사 중 비교적 높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유수홀딩스와 한라홀딩스는 각각 70.1%와 65.4%의 자산 감소율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따른 위기 요인들을 반영한 재무 운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2014년 상장 순수지주회사 배당수익

단위: 백만원, -는 배당없음

순위	회사명	배당수익금	영업수익 대비 배당수익 비중
1	농심홀딩스	20,135	100%
2	하이트진로홀딩스	62,720	93.4%
3	세아홀딩스	73,183	90.1%
4	하림홀딩스	11,852	89.7%
5	대상홀딩스	17,856	87.6%
6	KISCO홀딩스	11,528	85.1%
7	S&T홀딩스	5,581	72.5%
8	노루홀딩스	25,814	71.8%
9	영원무역홀딩스	17,884	66.2%
10	AK홀딩스	12,439	65.8%
11	SBS미디어홀딩스	10,740	62.9%
12	KPX홀딩스	7,305	62.0%
13	아모레퍼시픽그룹	50,025	61.3%
14	KC그린홀딩스	14,453	59.9%
15	일진홀딩스	3,200	58.0%
16	네오위즈홀딩스	915	57.8%
17	한진중공업홀딩스	8,341	55.3%
18	한세예스24홀딩스	3,371	47.9%
19	인터파크홀딩스	3,327	42.9%
20	NICE홀딩스	9,660	38.9%
21	동성홀딩스	5,768	35.2%
22	평화홀딩스	4,270	33.4%
23	아이디스홀딩스	2,529	25.0%
24	휴맥스홀딩스	1,153	22.2%
25	삼양홀딩스	46,726	22%
26	한국콜마홀딩스	673	5.1%
27	JW홀딩스	2,829	4.5%
28	풍산홀딩스	5,036	4.2%
29	CS홀딩스	74	3.8%
30	한국전자홀딩스	166	2.6%
31	한라홀딩스	234	2.4%
32	유수홀딩스	240	1.6%
33	에스제이엠홀딩스	1.6	0.17%
34	웅진(홀딩스)	30	0.02%
35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3	0.02%
36	비에스이홀딩스	-	-

'한결같은 배당' 농심홀딩스, 영업수익의 100% 차지

지주사 배당수익은 얼마나

작년 201억…최근 5년간 일관된 정책
하이트진로·세아홀딩스 90%대로 2·3위
사업 지주사 중엔 SK 72.9%로 수위

농심홀딩스가 순수 지주사의 매출 대비 배당수익 비중이 가장 큰 회사로 조사됐다. 농심의 '한결같은 배당정책'으로 실적 변동과 상관없이 농심홀딩스의 배당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효과까지 보고 있다.

15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국내 상장 지주회사 50곳(금융·중간지주회사 제외)의 배당수익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순수 지주회사 36곳과 사업 지주회사 14곳을 분류 조사했으며, 순위 집계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수익 대비 배당수익의 비중이 큰 순서로 기준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임대·배당·수수료·로열티·이자수익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이를 제조회사에서의 매출액과 같이 영업수익이라고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수 지주회사 부문에서는 농심홀딩스가 지난해 배당수익 201억35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지난해 영업수익의 100%에 이르는 금액이다. 매출 전체가 배당을 통해 쌓아올렸으며, 지난 5년 동안 이와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농심홀딩스 아래 계열사들의 사업 수완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 그룹 최대 회사 농심이 매년 231억원가량으로 변동 없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어 농심홀딩스도 92억원가량 일정 금액의 배당정책을 펼친다. 오너일가가 66.7% 이상 지분을 보유한 농심홀딩스가 오너일가에 유리한 배당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겪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주사는 그룹 내 최상위 지배회사로 오너일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종속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이 절대적 수입이다. 지주회사가 '오너일가 배당 몰아주기'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2·3위를 차지한 하이트진로홀딩스와 세아홀딩스는 각각 영업수익의 93.4%, 90.1% 수준으로 배당수익을 채웠다. 하림홀딩스(118억원), 대상홀딩스(178억원), KISCO홀딩스(115억원)가 전체 영업수익에서 배당수익이 80%대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반대로 순수 지주회사 중 원천 수익인 배당수익 비중이 한 자릿수인 곳들도 있다. 이들은 지주회사 전환시기가 아직 길지 않거나 초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배당수익 비중이 5.1%인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2012년 12월 지주사로 전환했고, 0.02%를 보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 2013년, 2.4% 비중을 보인 한라홀딩스는 지난해 각각 전환했다.

사업 지주회사의 경우 SK가 지난해 영업수익의 72.9%(7231억원)를 배당수익으로 채우면서 1위에 올랐다. SK의 총수익은 배당·로열티·임대·용역 수익 순이며, 지난 2013년 자회사인 SK E&S가 케이파워를 합병하면서 배당수익 규모가 7980억원으로, 전년 4910억원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SK 종속사들이 순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SK에 지급하는 배당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주사의 수익 유지를 위해 '자회사 쥐어짜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음으로 GS와 LS가 각각 지난해 배당수익 1381억원, 505억원으로 총 영업수익의 54.5%, 51.6%를 차지했다. 8위를 차지한 CJ의 경우 그룹 전체적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로열티 수익 규모가 해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금 수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수익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주사는 순수지주의 경우 10곳 중 5개사, 사업지주사의 경우 10곳 중 2개사꼴로 각각 나왔다.

비에스이홀딩스는 조사 대상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배당수익이 없었다. 지난해 매출 12억원가량은 상표권수익, 계열사와의 용역을 통한 기타수익 등으로 발생했다. 또 영업수익과 관계없이 조사대상 지주사의 배당수익 금액만 살펴보면, SK가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SK는 지난해 배당수익 7231억원을 끌어 모았으며, 이어 LG가 2094억원가량을 배당받았다. 세 번째로 두산이 1702억원을, GS 1381억원, 세아홀딩스가 732억원가량으로 톱5에 자리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2014년 상장 사업지주회사 배당수익

단위: 백만원

순위	회사명	배당수익금	영업수익 대비 배당수익 비중
1	SK	723,126	72.9%
2	GS	138,104	54.5%
3	LS	50,522	51.6%
4	풀무원	27,265	36.8%
5	LG	209,394	36.4%
6	한진칼	8,104	19.4%
7	아세아	2,514	17.6%
8	CJ	16,565	16.8%
9	현대HCN	6,048	14.5%
10	코오롱	5,676	9.6%
11	두산	170,247	8.5%
12	대웅	3,775	8.2%
13	넥센	3,951	1.8%
14	한미사이언스	282	1.2%





단기적으로 실적 타격… 데이터 사용량 많아져 수익 늘 것



KT는 지난 8일 국내 최초로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인 대신 데이터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전격 출시했다. 사진제공 KT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인 대신 데이터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15일 출시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데이터 요금제' 경제학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로 신(新)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 중심제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로 개편하면서다. SK텔레콤도 이르면 다음주 중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미래형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이통사가 음성 주도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고 데이터 중심의 성장 좌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적인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졌다. 소비자들이 음성 통화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사용 패턴이 바뀐 것도 이통사의 결정을 움직였다. 이 때문에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이 이통사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오히려 이통사들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데이터 중심의 수익구조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용자 패턴 '음성→데이터' 변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잇따라 출시
이통사 '데이터 중심' 성장체제 전환
박근혜 정부 통신비 인하정책 한몫

◇이통사, 수익구조 영향은 = 데이터 중심으로의 요금체계 전환은 단기적으로 이통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음성은 돈이 안되고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원리가 적용됐다. 이는 이통사의 단기 수익구조에는 부정적으로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잘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데이터 사용량보다 음성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통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음성통화 요금제 인하는 이통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음성 통화료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통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번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인해 2G나 3G 가입자가 4G시장으로 넘어오는 벽이 허물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통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를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안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요금제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이통사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하지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생기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 이통사의 수익구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듯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 데이터 위주로 요금제를 개편한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라며 "이통사가 음성적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판단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요금제 전격 전환… 왜? = 이번에 이통사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를 개편한 결정적인 배경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정책을 내놨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정책 등을 통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모색된 정책이 데이터 중심의 요금정책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면서 이통사가 데이터 요금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카드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요금인하 정책에 맞추면서 미래형 수익구조로 바꾸는 결정이었다"며 "시대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 필요성도 제기돼 이통사들이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가계통신비의 선택권은 소비자로 이동하게 됐다.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음성통화를 확 풀었기 때문이다. 대신 데이터는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몫으로 넘겨졌다.

양창균 기자 yangck@

KT-LGU+ 데이터 요금제 비교해보니

KT, 쓰고 남은 데이터 다음달로

'데이터 밀당' 특허 출원… 데이터 이용 효율 최적화

영화·드라마 즐겨본다면 LGU+

'비디오 요금제' 차별… 매일 1GB 데이터 별도 제공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14일 출시했다. KT는 이른바 '밀당' 제도로 데이터 이용 효율을 최적화했고, LG유플러스는 동영상 시청에 특화된 요금제로 맞섰다.

LG유플러스와 KT의 기본적인 요금제 구성을 보면 양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KT가 1GB와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각각 월 3만4900원과 3만9900원으로 책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조건의 요금제를 월 3만3900원과 3만8900원으로 1000원씩 낮췄다는 정도다.

KT-LG유플러스 데이터 요금제 비교표

월정액	음성/문자	데이터
29,900	무한 (유선)	300MB+밀당
34,900		1GB+밀당
39,900		2GB+밀당
44,900		3GB+밀당
49,900		6GB+밀당
54,900	무한 (유무선)	8GB+밀당
59,900		10GB+일 2GB QoS 3Mbps
69,900		15GB+일 2GB QoS 3Mbps
99,900		30GB+일 2GB QoS 3Mbps

월정액	음성/문자	데이터
29,900	무제한 (무선)	300MB
33,900		1GB
38,900		2GB
49,900		6GB
59,900		10GB+일 2GB QoS 3Mbps (무제한)
69,900		15GB+일 2GB QoS 3Mbps (무제한)
99,900		30GB+일 2GB QoS 3Mbps (무제한)

부가적인 요금제에서는 각각의 장점이 확연히 다르다. KT 요금제의 최대 무기는 '데이터 밀당' 제도다. 이는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이번달에 끌어다 쓰는 것으로, 모든 요금 구간에서 각각 최대 2GB까지, 최대 4GB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사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좋은 제도이지만 타사에서 따라할 수도 없다. KT가 아예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LG유플러스는 동영상 시청에 특화된 'LTE 데이터 중심 Video 요금제'를 하나 더 선보이며 맞대응하고 있다. 각각 요금제에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외에도 모바일 IPTV인 'U+HDTV'와 영화·HBO 무제한 서비스인 '유플릭스 무비(UflixMovie)' 전용 데이터를 매일 1GB씩 별도로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 영상은 고화질로만 서비스돼 1GB추가 제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음성에서는 KT가 좀 더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전 요금제 구간에서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되지만 통화는 '무선'에 한정된다. 유선 서비스는 299~499 요금제에서 월 30분, 599 이상 요금제에선 월 200분 제공된다. KT는 549 요금제부터 통신사 관계없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한 제공한다.

박성제 기자 psj@

2G·3G에 발묶인 SKT

이통사 중 가장 낮은 LTE전환율

'데이터 중심 요금' 도입 쉽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을 선뜻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당초 KT나 LG유플러스보다 빠르게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살리지 못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어정쩡하게 대응하고 있는 진짜 원인을 이 회사의 가입자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 가운데 SK텔레콤의 2G와 3G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의 LTE 전환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데이터 사용량이 없거나 작은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높은 SK텔레콤이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SK텔레콤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곧 데이터 중심 요금제 경쟁에 합류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국감 불려갈라' 해외자원개발 '올스톱'

광업 작년보다 47% 감소… 가스는 추가투자 증발
中, 유가폭락으로 수익률 줄어도 '광폭행보' 눈길

정부가 국내 유동자금의 해외투자를 독려하면서도 해외자원 개발은 외면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인수합병(M&A), 수입 등의 방면으로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포함한 종합적 방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투자 진흥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해외자원 개발 투자 앞에선 냉랭하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업 분야 해외자원개발투자액(신고액 기준)은 2012년 112억1000만 달러(약 12조2133억원), 2013년 79억5000만 달러, 2014년 41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또한 올 1분기의 경우 9억7000만 달러만 광업 분야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47.3%까지 감소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수익성이 명약관화한 석유공사의 호주자원개발사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스공사 등의 해외사업 분야도 추가 투자가 올스톱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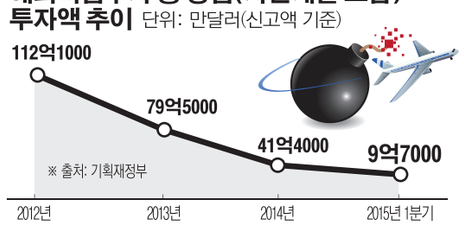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에다 저유가로 자원개발투자비가 낮아진 현시점에 해외자원 개발이 쇠락하고 있는 데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집행액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이란 해외자원 개발 등에서 생산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해 주지만 성공 시 원금, 이자 외에 15년간 순수익금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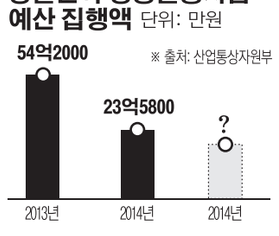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국내 한 전문가는 "중국 국영에너지 기업인 시노펙 등이 유가 폭락으로 30%나 수익률이 줄었지만 저유가를 기회로 꾸준히 해외투자 기조를 놓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해외직접투자 중 광업(자원개발 포함) 투자액 추이 단위: 만달러(신고액 기준)



광물분야 성공불융자금 예산 집행액 단위: 만원



DMZ 관광·농촌체험… 이색 유커관광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농협·농식품부, 코레일 협력 중국인관광객(유커) 한국 농촌관광 출범식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DMZ 관광열차를 타고 손을 흔들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중국 산동가와문화국제여행사에서 모객한 유커 130명은 DMZ 관광열차를 타고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로 가 한국 농촌체험을 하고, 제2땅굴과 비무장지대 등 분단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뉴시스

박 대통령 "페이고 먼저" 野 "부자감세 철회 먼저"

국회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 준칙 정착이 급하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함께 강구토록 하는 제도다.

사실 현행 국회법의 규칙만 살짝 손봐도 굳이 페이고를 위한 새로운 입법은 필요치 않다. 이미 국회법에는 페이고를 위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는 또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이노근 이원이 각각 2012년, 2013년에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페이고 제도와 관련해 14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새는 곳 없나… 정부 '해외 모범 가계부' 살핀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효과적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세출구조조정 기능 강화 △재정당국과 사업 부처의 역할 및 역량 강화 △재정집행과정의 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주목하고 있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도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통해 재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는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하위 5% 규모의 예산사업을 삭감하고 재배분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중요한 정책 평가 영역을 선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예산 삭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인문계 전공자 대상 유망 IT/SW분야 훈련과정(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신(新) 자격 명칭	과정 개요
SW분석 설계자 과정	SW분석설계자	SW설계 기반 개발 리드
SW개발자과정	SW개발자	응용SW 개발로 단위 테스트, 제품의 성능 향상, 서비스 개선 능력 확보
임베디드 SW엔지니어과정	임베디드SW개발자	운영체계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 임베디드 SW 개발
SW테스터 과정	SW 테스터	SW사업의 오류 해결을 통해 대안을 제시
IT시스템 운영자과정	IT 시스템운영자	정보기술 자원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리 수행

정부 '인구론' 해법 찾는다

〈인문계 90%가 논다〉

고용부, 내달중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대책 발표

정부가 극심한 인문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인문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채용연계형 IT·소프트웨어(SW) 교육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졸업 전 재학 단계부터 입사 후 경력개발 단계까지 포괄적 교육훈련도 지원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인문계 고용촉진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인문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을 돕고자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IT·SW 분야 등 인문계 특화 과정'을 하반기에 개설한다. 고용부는 참여자들이 IT·SW 비전공자임을 고려해 이 과정을 NCS 바탕으로 설계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중급 수준 이상의 인재를 키워 인문계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기초직업능력, 현장실습, 취업박람회 프로그램 등을 보강해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 기존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과정 운영 기업이나 협회, 수료생에 대한 우선채용 의사를 가진 참여기업을 10개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실질적 취업 연계 효과 기대를 위해 정부는 약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20%를 부담하면 나머지 80%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조성해 청년들이 무료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SW와 IT비즈니스 분야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2.9%, 1.8%로 12대 주력산업의 평균 부족률(2.4%)을 웃돌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임대차보호법 고쳤다지만…

권리금 보호 여전히 사각지대

박모(54·남)씨는 은퇴 후 자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자 중심가 상권에 매물을 알아보던 중 서울 동작구에 음식점을 개업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인데, 권리금이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3년 뒤 건물주가 업종을 변경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 박씨가 버티자 건물주는 월세를 3배로 올렸다. 결국 박씨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임차상인들은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 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지난달 28~29일 전국 57곳의 월세와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상가권리금은 월세의 평균 53배였다. 특히 서울 강동구 요식업은 130배, 서울 홍대 앞 식당은 116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와 종로구 삼청동 가방가게는 권리금이 월세의 100배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갱신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중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현재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에 달하는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공실 상태로 두고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라고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자식과
욱하면 참아왔던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시는 아버지의
평범해서 특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빠의 행복을 부탁해

서진원 지음 | 208쪽 | 13,000원



뻔하지 않게 진부하지 않게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

"가족에게 주는 것만 익숙하고
받는 것은 어색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아빠, 이제 받을 차례야. 위로받을 차례."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李·洪 '유죄검증' 끝난 檢… 내주 기소?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혐의입증 정황증거 확보… 사법처리 초읽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홍 지사와 함께 이 전 총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한 달간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온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오른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주 속전속결로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지난 14일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총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진실한 것이 우선"이라며 "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다.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취재진의 질문에 반문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증언한 캠프 관계자 등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 전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부탄가스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 태양·세안산업 등 6개사 적발 309억 부과



5년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에 대해서는 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은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2년 2월 무렵까지 업체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를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 대표이사들은 2007년에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모임 이후, 이들 업체의 영업임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실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한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양 160억, 세안산업 90억, 맥선 39억, 닥터하우스 17억,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 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

"추가환급 신고 내달로 미루세요"

연말재정산·소득세신고 중복 우려… 납세자연맹 주의사항 권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연맹이 제시한 7가지 유의사항이다.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 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재정산 대상자가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중한 환급권리를 꼼꼼히 챙기면 좋다. 이와 관련해 연맹 측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에 있는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선생님 마스크 챙기세요"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에 짙게 낀 박무사이로 출근길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유영E&L 대표 구속

포스코플랜텍의 해외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모(65) 유영E&L 대표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영E&L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화엠피 계열사다.

이 대표는 2013~2014년 전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크라이슬러·푸조·시트로엥 1000대 리콜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100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한 크라이슬러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는 에어백 내부부품 결함으로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3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 231대가 리콜 대상이다.

또 한불모터스가 수입한 푸조 308(2014년 1월 15일~11월 13일) 349대와 푸조308SW(2014년 4월 22일~11월 26일) 94대,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2013년 11월 12일~2014년 11월 14일) 337대, 시트로엥 C4 Picasso(2014년 7월 3일~2014년 10월 13일) 18대도 리콜을 실시한다.

이들 자동차는 앞바퀴와 관련된 고정볼트 파손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방향 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와 한불모터스(02-3408-165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한국 CSR, 이젠 지역·국경 넘어 세계의 중심에 서자"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2015 CSR INTERNATIONAL CONFERENCE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해법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대회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KOSRI·한국SR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가 1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매년 CSR 분야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홍일표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한국SR전략연구소 대표), 김영기 LG그룹 CSR팀 부사장, 전진철 CJ그룹 CSV경영실 부실장(상무), 이장희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장,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등 내빈과 각 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일표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행사 이모저모


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토론자의 사례발표에 박수를 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CSR는 □□다

참석자들 '양심·공기·정화제' 등 언급
"알찬 내용…글로벌 안목 키워" 평가

'양심', '공기', '정화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미지다.

14일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CSR은 ㅁㅁ다' 현장 이벤트가 진행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참석자들이 언급한 'CSR 개념 10가지'는 △소통 △상생 △양심 △촛불 △공기 △톱니바퀴 △대세 △정화제 △배려 △기본 등이었다.

CSR를 '배려'라고 표현한 A기업 홍보 담당자는 "CSR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기는 배려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라고 언급한 B기업 CSR 담당자는 "CSR는 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인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CRS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 글로벌 CSR 환경과 현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컨퍼런스의 주제인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 내용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오일뱅크 CSR 담당자는 "중국 관련 사례가 제시돼 좋았다"며 "특히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서의 CSR 성공과 실패 사례를 알려준 점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한 교육업체 CSR 담당자는 "지금까지 CSR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의 자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발전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업 홍보 담당자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SR를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 안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으며 대한항공 관계자는 "CSR 실무자들의 강연을 통해 형식에서 벗어난 알차고 밀도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국내 사회공헌 선두인 CJ와 코트라의 사회공헌 활동 및 중국의 사회공헌 활동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저성장시대, 글로벌 CSR로 퍼스트 무버 돼야"

전문가 패널 토론

CSV 없인 고속성장 불가능
인니 등 신흥시장 기회 풍부
기업 핵심역량 적극 활용을

이종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CSR는 다른 경영학의 개념들보다 더 사회적 개념으로 기업들은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우리 사회의 욕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홍일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CSR 활동의 목적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 강화나 현지 안착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상생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위원은 "국회 CSR포럼에서 CSR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CSR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글로벌 CSR 활동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산업부, 외교부, 조달청 등과 함께 CSR 확산·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펑지라이 중국 신타오 수석연구원이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사회책임활동 준수 사항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전진철 CJ그룹 CSV경영실 부실장이 'CJ그룹의 글로벌 CSV경영'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 이장희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장은 '우리 기업을 위한 코트라의 글로벌 CSR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펑지라이 수석연구원은 "뉴노멀 환경에서는 중국의 전통산업이 기업에 새로운 CSR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기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CSR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진철 CJ그룹 상무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CSR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이미지 제고는 필수"라며 "햇반이 흑자를 내기까지 10년이 걸렸듯,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코트라 단장은 "기업이 원하는 효과는 CSR를 통해 단기적 이미지 제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이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나 사회에서 원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출국 원하는 이슈 정확히 찾아야
이미지 제고, 매출·이익 증대 꾀할 수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혁신 제품·서비스가 중요 사안 될 것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발표자들이 글로벌 CSR의 구체적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했다. 이들은 모두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CSR를 꼽았다.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공유가치창출(CSV)이 곧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CSV 없이 고속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사회 문제는 이제 오히려 문제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기회로 봐야 하며 기업들은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CSV입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는 "CSV(공유가치창출) 없이 한국사회의 고속 성장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사회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이며 기업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SR는 전략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CSV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철 CJ그룹 상무는 "CJ의 대표적 CSV 상품은 바로 '햇반'"이라며 "햇반이 초기에는 CSV로 꼽히지 않았지만, 사회를 좀 더 편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CSV 사업이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CSR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흥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장희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 단장은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 30세에 석탄, 천연가스, 커피 등이 풍부한 자원대국"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함께 국가 인프라 건설 기회 등의 분야에서 CSR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CSR를 잘하기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 이장희 단장은 "예산 제약이 있는 만큼 지역과 국가에서 원하는 이슈를 정확히 찾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진철 상무는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CSV에 대한 고민에 보다 몰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펑지라이 중국 신타오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CSR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는 "기업에 산재된 윤리경영, 환경, 지속가능, 사회참여경영 등을 글로벌 진출 전략에 맞도록 개방적이고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COVER STORY
손주와 나 grand pa ma



손주만 보면 웃음꽃이 절로 핀다. 삶의 종반부에서 맞닥뜨리는 조부모 단계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손자녀로 인해 가족 사랑의 기반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 손주 사랑이 자녀 사랑보다 밀도나 농도가 강해지는 이유는 뭘까. 조부모의 역할과 좋은 조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탐색한다.

- 왜 아들딸보다 손자손녀가 더 사랑스러울까?
- 손주바보, 그들의 사랑 TYPE
- '키즈 마스터' 백종화의 좋은 조부모 되기 지침서
- Do 대화법 vs Do Not 대화법
- 이근후 교수 '한 지붕 열 세 식구 이야기'
-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손자 사랑법

5월의 맛
재즈 선율에 취하다

원스인어블루문은 17년이라는 역사를 거치며 한국 재즈의 중심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버클리음대 출신의 연주자들로 이뤄진 리처드 로 쿼텟의 공연이 있던 저녁, 재즈의 천국으로 가만히 잠겨봤다.
- 나들이 도시락에 취하다
- 예술의 향기에 취하다
- 호텔의 디너에 취하다

나의 어머니
홍수환의 어머니 '황농선'

"엄마,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2015년 홍수환이 어머니 황농선씨를 기억하며 부르는 호칭은 40여년 전 그대로 '엄마'다. 왜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는 호칭을 쓰냐는 질문에 "그냥 엄마는 엄마가 좋다"고 대답한다. 그렇다.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어머니는 따뜻하고 인자한 그런 '엄마'로 남아 있는 게 분명하다.

해외투어
이곳, 가기 전에는 죽지마라
여행정보서에 소개되는 유명 관광지로는 로마 유적이 남아 있는 수도, 루블랴나, 호반의 도시인 블레드, 포스토이나 동굴이 대표적이다. 그중 블레드는 한눈에도 눈시리게 아름다워 가슴속에 깊게도 새겨진다.

5월의 산책
숲+부처님=청정힐링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가까운 사찰이 있는 자연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괜찮은 곳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봉선사다. 그 옆은 광릉 숲이 펼쳐져 있다. 초여름 나들이로 제격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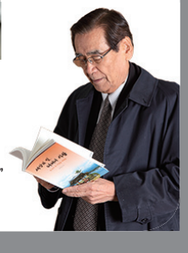
추천 맛집
상견례를 위한 청담동 마님의 선택
일생일대 그르치면 안 되는 일 중 하나인 상견례. 두 가족이 소중한 연을 맺는 자리인 만큼 장소 선정 또한 중요하다.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줄 인테리어와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의 조화는 필수! 성공적인 상견례를 이끄는 프라이빗 룸과 품격 있는 코스요리를 겸비한 청담동 레스토랑 두 곳을 소개한다.

우리 세대 이야기
1947년생 질곡의 편린 한 조각
고루살이를 꿈꾸는 작가 김성동이 말하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 원고를 청탁했더니 "난 부족한 사람인디. 글 못 쓰니께 다른 선상 알아봐유." 그렇게 사양하던 작가 김성동은 고색창연한 원고지를 노끈으로 묶어 우편으로 보내왔다.

메디컬 공감스토리
착한 환자, 좋은 의사 되기
의사와 환자, 생명을 걸고 맡기는 관계. 둘 사이에 맺어지는 깊은 신뢰감을 라뽀(rapport)라고 말한다. 이 관계를 주목하기 위해 직장암과 위암을 이겨낸 황병민씨, 그를 살린 국립암센터 김영우 박사, 둘만의 특별한 12년을 들여다봤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열정과 사랑
- 배우 예수정의 두근거리는 삶


보람과 여유
- 권혁승 백교문학회 회장의 어머니론 "어머니는 신이다"

제2인생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기구독 신청 (02)799-2684 Fax (02)799-6700
1권: 1만원/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 이메일 bravo@etoday.co.kr

Lovely Life

당신의 삶을 더 사랑스럽게!
Lovely Life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LOTTE DEPARTMENT STORE

베푸신 사랑 …

보답하기엔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말

고맙습니다

롯데백화점 공식모델 **박신혜**(Park Shin Hye)

2015 S/S 해외패션 시즌오프
5/15(금)~, 입점 전점, 브랜드별 기간 상이, 일부 품목 제외
1년에 단 두번, 해외브랜드 구매를 위한 절호의 찬스!
30% 마이클코어스, 레베카밍코프 外 30~40% 모스키노 外

UNIQLO 유니클로 감사제
5/14(목)~17(일), 입점 전점
5/14(목)~18(월), 센텀/이시아/동부산점
에어리즘(메쉬 제외) 9,900원 / 드라이피케폴로셔츠(무지, 남성) 14,900원
· 6만원이상 구매시 오리지널 피크닉 시트/LINE UT 증정(택1)
· 10만원이상 구매시 오리지널 텀블러 증정(사은품은 일별/점별 수량 상이, 한정수량)

성년의날 선물기획
5/15(금)~17(일), 입점 전점
향수 크리스찬디올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EDT(30ml) 79,000원
란제리 CK언더웨어 브라+팬티 세트/드로즈 173,000/60,000원
핸드백 쿠론 말리카파브레 클러치백/쇼퍼백 175,000/325,000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롯데상품권**
법인 기업체 구매상담 (02) 2118-6400~9, 6411~6420
자세한 사용처는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품권'탭을 클릭하세요

롯데상품권 증정
5/15(금)~17(일) 전점
▷ 롯데카드·L.POINT 카드로 20/40/60/100만원이상 구매시 5% 롯데상품권 증정
· 롯데멤버스 카드가 4월 20일부터 L.POINT 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웃도어·남성패션 브랜드 20/40만원이상 구매시 10% 롯데상품권 증정
· 수원점/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제외, 브랜드간 합산 불가, 점별 참여/입점 브랜드 상이

아울렛을 한번 더 할인하다! **롯데 팩토리아울렛 인천점 GRAND OPEN 5.22(금)**

NAVER 롯데백화점

영업안내 서울 및 수도권 전점 5월 15일(금)~17일(일) 8시 30분까지, 5월 18일(월) 휴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신문에 게재된 상품은 기재된 정표기 기준 대표 품목이며, 일부품목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사은행사는 당일 본인 영수증에 한하여 점간 영수증 합산 가능(타 사은행사와 중복 증정 불가) ·점별 입점 브랜드 상이 ·자세한 내용은 점내 고지물 및 홈페이지(http://store.lotteshopping.com) 참조

롯데백화점

"美금리 오르기 전에 외화자금 확보하라"

시중은행, 글로벌본드 발행 러시

올들어 5개 은행서 44억달러
산업, 국내 5년물 중 최저금리
기업, 지난달 0.75%P로 완료
수출입銀, 10억달러 최대규모

은행들의 글로벌본드 발행 현황 (단위: 달러)

은행명	날짜	규모	만기
우리은행	1월	3억5000만	5.5년
수출입은행	1월	10억	5년
		12억5000만	10년
기업은행	4월	7억	5년
신한은행	4월	6억	5년
산업은행	5월	5억	5년
합계		44억달러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글로벌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개 은행이 총 44억달러를 발행했다. 다른 은행들도 글로벌본드 발행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발행 작업을 진행중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12일 5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금리는 5년 미국채 금리에 0.725%p를 더한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계 5년물 중 최저 금리다.

고상필 자금부 팀장은 "5억 달러를 목표로 발행했는데, 90개 어카운트로 부터 13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접수됐다"며"기존에 차입했던 외화자금을 상환하고 내부적으로 외화대출 운용자금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각각 7억달러와 6억달러 규모의 만기 5년짜리 글로벌본드 발행했다. 기업은행의 펀드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가격인 5년 미국채금리+0.90%p에서 15bp 하락한 0.75%p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신한은행은 미국 5년 국채금리에 0.925%p를 더한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수출입은행이 한국기관 사상 최대규모인 22억5000만달러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10억달러는 5년 만기로 미국채 금리에 0.9%p, 12억5000만달러는 10년 만기에 1.025%p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발행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월 5.5년 만기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던 NH농협은행도 최근 글로벌본드 발행을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현재 발행시기 및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재 매각주간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은행들이 글로벌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이전 외화자금을 미리 확보해 외화대출 상환이나 기업의 수출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6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서울보증, 베트남에 200억 증자 동남아·중남미 진출 속도낸다

하노이 지점 보증한도 건당 3배↑
자본금 확충으로 사업규모 늘고
한국기업 운영자금 여유 '1석2조'

SGI서울보증이 베트남 하노이 지점에 200억원 증자를 결정했다. 현재 서울보증 하노이 지점 자본금은 100억원 정도로 보증 한도로 사업에 제한이 있어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하노이 지점의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건당 5억원의 보증한도가 15억원으로 3배나 늘어나게 된다.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은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따라서 서울보증이 자본금을 확충해 보증 한도를 높일 경우 한국 기업은 보증서로 대체하고 담보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줄게되고, 서울보증은 보증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보증은 현지 베트남 은행에 2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화폐(동)를 예금으로 입금하고, 베트남 현지 당국에 베트남 화폐로 자본금이 있다는 서류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게 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은 서울보증이 베트남에서 보증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보증은 베트남을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멕시코 등 동남아와 중남미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글로벌 톱3' 보증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보증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을 개설 이후 3개월간 현지 진출 한국 기업으로 부터 보증건수 144건, 보증액 3200억동(약 16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김옥찬 서울보증 사장은 지난 1월 베트남 현지투자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건설사 등 10여명의 대표를 만나는 등 현지 보증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구귀 기자 kkk@

수출입銀, 서울대병원 해외진출 '금융코디'



수출입은행은 14일 서울대학교병원과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덕훈 수은 행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네번째)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나 △서울대병원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도모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 △유망 사업의 공동 발굴 △발굴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수수료 얼마나 낮게 불렀길래…

코스트코, 삼성카드 또다시 택했다

15년째 독점계약… 결제액 年2조

삼성카드가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의 가맹점 독점계약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5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삼성카드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맹점 독점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코스트코 가맹계약 협상에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와의 가맹점 협상은 경쟁입찰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무자선에서 코스트코와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맹 카드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코스트코는 2000년 부터 한 국가당 1개 카드사와 독점계약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삼성카드와 15년째 가맹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 결제액은 연간 2조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첫 계약 시부터 0.7%의 낮은 수수료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삼성카드는 연간 140억원, 15년 동안 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5월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의 가맹점 독점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협상에 돌입했다. 그동안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맺은 0.7%의 수수료율 계약을 어기게 돼 차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에 따른 새 수수료를 공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1.9~2.1%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와 실무자들끼리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삼성카드와 비슷한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계약기간 등 세부 조건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계약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기자 nfs0118@

'高금리 예금효과' 경남은행 총수신 30조 돌파

'다모아정기예금' 최고 2.7% 등 상품 인기

경남은행이 총수신 30조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3년 4월 총수신 25조원을 달성한 이후 2년만에 5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도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다모아정기예금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BNK바람통장' 등 수신상품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1.7% 기본금리 외 카드사용 증가액에 따라 최고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다모아정기예금은 지난 4월 출시해 1개월만에 6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거래실적 증가에 따라 우대금리 1.0% 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금리 2.7%가 지급되고, 500만원 이상 최대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출시된 'BNK바람통장'은 수익의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공익형금융상품으로 출시 한 달여만에 1200억원이 몰렸다.

이외도 행복드림적금(최고 2.65%)·재형저축(최고 4.2%)·희망모아적금(최고 6.0%)·캠퍼스드림적금(최고 3.45%)·카드플러스적금(최고 4.6%) 등의 금융상품도 총수신 증가에 기여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삼성·LG, OLED TV 2년뒤 한판 붙는다

삼성 미래전략실, 기술 방식 변경 권고… 투자 재개 전망
LG디스플레이는 지속적 투자… 2017년 맞대결 가능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TV 맞대결은 언제쯤 가능할까. OLED TV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17년, 양사가 OLED TV로 프리미엄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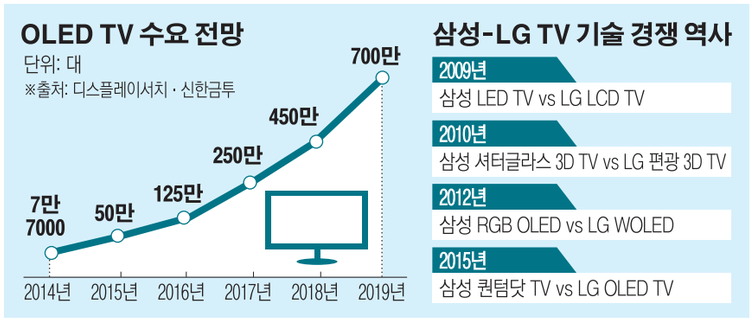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삼성전자는 OLED TV 시장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최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영진단 이후 대형 OLED 패널 사업 재개 및 OLED 기술 방식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OLED TV가 높은 가격때문에 수요 확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LED 기반의 'SUHD TV'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올 하반기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투자 재개와 LG디스플레이의 지속적 OLED 패널 투자가 맞물리면서 2017년 55인치 UHD OLED TV 가격이 10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투자를 중단하고 8세대 OLED 파일럿라인 'V1'만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세계 TV 시장에서 제품과 패널 기술로 경쟁을 벌여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같은 LCD TV로 대결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9년 LED TV와 LCD TV로 패널 기술 경쟁을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백라이트를 LED로 바꾼 LED TV를 선보였고 LG전자는 기존 LCD TV로 삼성 TV와 맞붙었다. 이후 화질, 전력 사용량, 두께 등의 장점으로 시장은 LED TV로 재편됐다.

두 번째 라운드는 3D TV다. 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D 구현 방식을 두고 대결했다. 삼성전자는 셔터글라스 방식의 3D 기술을, LG전자는 편광 방식의 3D 기술을 채택했다.



OLED TV 기술 경쟁은 2012년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RGB OLED를, LG전자는 WOLED를 채택하며 패널 기술에서 또 한 번 대결이 펼쳐진 것.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OLED TV 신제품 출시를 중단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에 대한 연구개발만 지속하고 있다.

OLED TV 출시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계속해서 OLED TV 재개설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디스플레이 영향이 크다. LCD와 OLED 패널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이끄는 양대 사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OLED TV가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은 상태"라며 "삼성전자는 시장 형성과 가격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OLED TV를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추진

포스코, 자금지원 중단
울산공장 매각 등 제시

포스코가 부실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회사의 한 사외이사는 "포스코플랜텍에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의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달 말부터 채권단과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는 채권단에 포스코플랜텍의 울산공장 등 자산매각, 보증을 통한 회사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협의가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룹의 신용도, 채권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최대한 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과거 유산과 단절하려는 쇄신안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 계열사 사장 및 사내 이사들의 사표를 받고 비상경영을 14일 선포했다. 이를 위해 발족한 비상경영쇄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오준 회장이 맡았다. 포스코 사내이사 4명과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등 5개 계열사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구조조정,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관행, 윤리·의식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 쇄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경영쇄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영E&L 대표 이모(65)씨를 구속했다. 앞서 14일에는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박재천(59) 회장을 구속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임직원은 현재까지 6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검찰이 수사의 본류를 포스코의 핵심으로 틀기 위한 수순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포스코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포스코플랜텍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의
포스하이알	법정관리 신청
포스코엠텍	청산절차 진행
도시광산사업부	
포스코건설 지분 40%, 포스코 우루과이, 포레카, 광양LNG터미널	매각 진행

LG생활건강 2400억 투자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 증설

LG생활건강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총 24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공장 증설에 나선다.

LG생활건강은 14일 이승훈 청주시장과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배정태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12만2314㎡(3만7000평)에 오는 2020년까지 6년동안 총 24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청주시는 LG생활건강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LG생활건강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은 계획된 투자사업 이행 및 향후 투자규모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바로 인접지역에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이 위치해 있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며 사업연계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20년까지 신규고용 447명, 2030년까지 108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이선애 기자 Lsa@

얼음 필요없는 아이스박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이마트가 얼음이 필요 없는 아이스박스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전국 가전매장 입점 점포에 모비쿨 아이스쿨러를 국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독점 수입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비쿨 아이스쿨러는 전기를 사용해 냉각효과를 얻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 콘센트나 차량용 시가잭만 있으면 별도의 냉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스타트업 발굴, 해외 진출 기회까지

'비글로벌' 오늘까지… PT경연 우승팀에 2억7000만원

아시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비글로벌 서울 2015(beGLOBAL SEOUL 201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에서 14일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주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막일인 14일에는 미국 최대 P2P 대출사이트 '랜딩클럽'의 공동 창업자인 소울타이트와 미국의 온라인 데이팅 앱 '틴더'의 조나단 바딘 등의 창업 스토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한 박지영 컴투스 전 대표와 문지원 빙글 공동 대표는 '여성 창업자들과의 대담'세션에 참여해 창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박지영 전 대표는 "실패 하더라고 창업을 해보는 것을 권하는 편"이라며 "창업을 하기 위해선 리더의 자질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는가' 세션에 참여해 창조경제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이석준 차관은 "창조 경제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생존, 새로운 성장 방식"이라며 "다양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에는 배달의민족을 서비스 하고 있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창업 스토리를 전하고, 욘 리서겐 멜트워터 그룹 창업자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강조한다.

비글로벌 2015의 메인이벤트인 '스타트업 배틀'도 동시에 진행됐다. 스타트업 배틀은 국내외 100개팀이 참여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개 팀이 프레젠테이션 경연을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는 대회다. 우승팀은 퀄컴벤처스로부터 약 2억7000만원 가량을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받게 된다.

비글로벌 2015를 개최한 정현욱 비석세스 대표는 "지난해까지 서울에서의 비론치(beLAUNCH)'와 실리콘밸리에서의 비글로벌(beGLOBAL)로 나누어 개최됐던 컨퍼런스가 올해를 기점으로 '비글로벌(beGLOBAL)'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됐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비글로벌을 딛고 많은 국가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저유가 덕에 웃은 한진해운·대한항공

한진해운 1분기 영업익 1550억
비용절감으로 1년만에 흑자전환
대한항공은 작년보다 787% ↑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한진그룹 주요 기업들이 저유가 덕분에 수혜를 제대로 입었다. 특히 한진해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한진해운 흑자전환 전까지는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딱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5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2010년 3분기 이후 최고치로 '노선 합리화·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2조1481억원, 당기순이익은 22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컨테이너 부문은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조9677억원, 영업이익은 1639억원을 기록했다. 미주 항로의 호조와 비수익 노선 철수, 기항지 조정 등 지속적으로 노선 합리화를 실행한 덕분이다.

또 저유가 기조를 배경으로 화물 운송 루트를 최적화하고 공 컨테이너 회송비를 감축하는 등 효율적 물류 비용 관리를 통해 연료비를 큰 폭으로 절감한 것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벌크 부문은 시황 부진 영향으로 283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다행히 손실폭은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터미널 사업 등 기타 부문 영업이익은 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6% 증가했다.

대한항공 역시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대한항공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89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7%나 증가했다. 이는 유류비 절감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2조8712억원을 기록, 순손실은 1331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사업부별로 여객 부문은 한국발 수송객 증가에 따라 전체 수송객이 8%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화물 부문은 지속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한국발 수송량과 환적 수송량이 각각 6% 증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희망드림 특례보증'
소상공인 몰린다

자금난 등으로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1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 금액은 4500억원이었으며, 지원금액도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만에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급증한 셈이다.

1조원 규모의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일시납부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도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다.

김정유 기자 thec98@

"日기업, 창조경제 관심 가져달라… ICT 공동연구 확대"
조현준 사장, 한일경제인회의 첫 강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사진) 효성 사장의 대내외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뒤를 이어 지난 3월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첫 강연을 진행했다.

조 사장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해 일본 기업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두 나라 간 ICT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확대도 제안했다.



조 사장은 국내 3세 경영인 중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일본 도쿄에 있는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부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2년부터 5년여 동안 일본 미쓰비시와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최근에는 조 사장이 키운 갤럭시아그룹 증자에 조 회장이 참여해 아들을 돕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캔커피 '조지아 고티카' 모델에 이서진

코카콜라의 세계 판매 1위 캔 커피 브랜드 조지아가 프리미엄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의 모델로 배우 이서진을 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서진은 최근 다양한 리얼리티 예능에서 본인만의 솔직한 매력과 움푹 패인 보조개로 '보조개천사', '보천이 오빠' 등으로 불리며, 대세 예능인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유기농 라이프를 표방한 '삼시세끼 농촌편'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커피를 마시겠다는 집념으로 맷돌 커피를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이서진은 이번에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의 듀얼 모델로 발탁된 세계적인 커피석학이자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기술위원인 션 스테이만 박사와 함께 TV-CF, 조지아 고티카 카페 등의 활동을 통해 '커피는 맛이 아니라 향'이라는 제품 콘셉트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첫 방송되는 '삼시세끼-정선편'을 통해 농번기를 맞아 농부로서의 본격적인 변신과 더불어 커피 향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커피향처럼 다양한 이서진의 매력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좋은 커피향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

"웹툰을 잡아라" 게임 연계 콘텐츠 뜬다



NHN엔터 "코미코 통해 수익모델화"
'드래곤 히어로즈'·'월드오브탱크' 등 웹툰으로 연재하고 이벤트도 진행
젊은층 공략 공동마케팅 시너지 기대
스타트업도 가세 신개념 서비스 준비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시장이 뜨겁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와 스타트업 등까지 시장에 뛰어들며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웹툰 서비스 '코미코'가 최근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돌파했다. 코미코는 인기 웹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서비스로 현재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1000만 누적 다운로드 중 900만건이 일본에서 발생하며 한국 웹툰 작가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NHN엔터는 웹툰의 성장세에 힘입어 코미코와 게임을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 8일 진행한 NHN엔터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우진 대표는 "코미코와 연계한 모바일 게임 수익모델을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게임은 물론 전자결제,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파티게임즈는 슈팅 RPG '드래곤히어로즈'의 출시에 앞서 배틀코믹스와 제휴해 웹툰을 선보인 바 있다. 드래곤히어로즈를 소재로 총10회 연재됐으며 이용자들에게 게임이 출시되기 전 웹툰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재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워게이밍은 탱크 액션게임 '월드오브탱크'를 레진코믹스와 손잡고 게임을 주제로 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레진코믹스에서 웹툰을 보고 이벤트를 확인한 뒤 월드오브탱크에 신규 가입하면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게임업계뿐만이 아니다. 옐로모바일이 서비스하고 있는 피키캐스트는 최근 신개념 웹툰 서비스 '피키툰'을 선보였다. 움짤, 동영상, 파노라마 기능 등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다른 웹툰 서비스와 차별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웹툰 서비스가 게임·스타트업계의 관심을 받는 것은 웹툰의 주요 소비층이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의 소비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웹툰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이를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의 장점이 있다. 주요 소비층이 10~20대 젊은 사용자임을 감안했을 때 공동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매년 성장하고 있는 웹툰의 시장 규모도 한몫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은 2012년 1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3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계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웹툰 시장이 게임사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며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웹툰이 다양한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모델·브랜드 이미지 궁합 맞으니 인지도·매출 '쑥'

음료업계 '스타 마케팅 효과' 쏠쏠하네

이영애 앞세운 '휴롬보틀주스' 판매 급증
수지 '비타500'·김소현 '포카리스웨트'도



휴롬 전속모델 이영애가 휴롬보틀주스 광고에서 제품에 메시지를 적고 있다. 사진제공 휴롬

음료업계가 최근 전략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발탁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들이 관련 품목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5일 휴롬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배우 이영애를 광고모델로 재기용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영애가 출연한 광고를 통해 '휴롬보틀주스'는 지난해 9월 출시 대비 약 200% 증가한 하루 360병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영애가 광고에서 만든 '에너지 밤' 주스 레시피는 광고 이후 주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휴롬 관계자는 "휴롬보틀주스는 쌍둥이의 엄마이자 주부인 이영애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담아 만든 홈메이드 주스라는 점에서 특히 2040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도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를 광고 모델로 채용하면서 제품 매출을 끌어올린 사례다. 수지는 광동제약의 '비타500' 전속모델로 활약, 최근엔 여동생의 친근한 이미지와 20대의 건강함을 내세우고 있다. 수지가 등장하는 비타500 광고 NG컷 모음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9만건을 상회할 정도다. 이에 따른 광동제약의 매출액도 2012년 3326억4000만원에서 2013년 4683억8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까지는 3935억9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역시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에 배우 김소현을 발탁,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다. 포카리스웨트 광고는 청순하고 순수한 느낌과 함께 여배우의 건강함까지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에 최근 포카리스웨트는 누적매출 2조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의 이미지가 제품 속성과 맞아떨어지면서 스타의 이름과 결합한 제품명이 마치 실제 브랜드처럼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면서 "향후 스타 모델을 내세운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연 10%대 성장…커가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국내 바이오업체 최대 수혜 주목

생산능력 32만 리터 세계 1위 수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이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바이오업계 및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2339억 달러에서 오는 2019년 3867억 달러로 연평균(CAGR) 10.5% 성장이 예상된다. 이 중 바이오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4년 19억 달러에서 2019년 39억 달러로 연평균 1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은 총 32만 리터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국내 바이오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해 2공장을 건립하며 총 18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췄고, 셀트리온의 생산능력은 현재 14만 리터다.

특히 서린바이오의 시약 부문 매출액은 2019년까지 연평균 20.8%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린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시약·기기 등을 공급하는 바이오 인프라 기업이다.

조현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소득 수준 향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활용한 의약품인 바이오의약품은 화학 합성 의약품을 대체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서린바이오의 경우 올해 매출액 비중은 △시약 56.1% △기기 22.4% △제품(헬스케어) 5.7% △기타 1.6% 등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시약 부문 올해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사·연구기관 등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인효 기자 kangih@

슈퍼 마리오의 뚝심 "QE 조기종료 없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까지 경기부양 기조 유지"
드라기 발언에 글로벌 금융시장 일제히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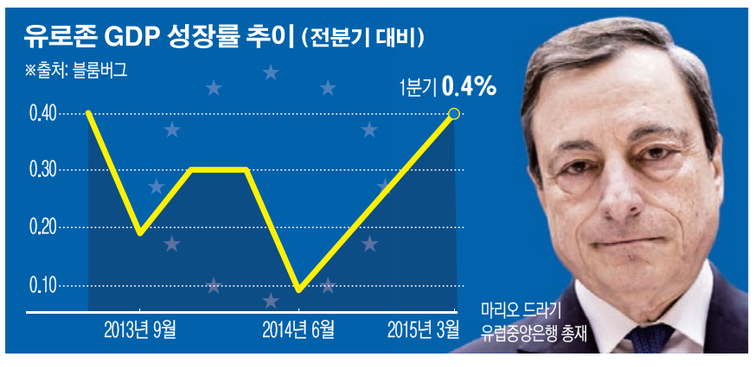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뚝심에 시장이 진성세를 되찾았다. 드라기 총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 강연에서 양적완화 조기 종료설을 일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연합(EU) 관리들이 견실한 기반 위에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ECB의 광범위한 부양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가격 상승과 경제자신감 회복 등 우리의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우리는 처음 발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전망을 조정하기 전까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유로존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양적완화 조기 종료설이 돌았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3일 1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제로(0)'였으며 이전 수개월간은 마이너스(-) 상태였다. ECB의 물가상승 목표는 2%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 7년간 이어진 위기로 민간 부문의 쇠퇴는 여전히 유럽 경제 리스크로 남아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선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 기조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ECB는 올해 3월 월 600억 유로(약 75조원)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내년 9월 종료할 예정이다.



양적완화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젊은층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과 가계 소비를 장려해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금융 불균형이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부동산 가격과 신용증가는 단지 일시적인 징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유럽과 미국증시, 채권시장이 일제히 강세로 돌아서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최근 채권 투매세로 촉발된 불안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범유럽증시 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0.64% 오른 397.99로 마감했다. 미국증시 S&P500지수는 1.08% 오른 2121.1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5bp(bp=0.01%P) 떨어진 2.23%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등하던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印 '新밀월'

모디 총리 첫 방중… 시진핑 고향 '시안' 찾아
"일대일로·AIIB·동방정책 밀접한 협력" 한뜻

세계 인구 대국 1, 2위를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의 정상이 '실크로드의 도시' 시안에서 이례적인 밀월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방중의 첫 행선지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의 성도 '시안'으로 택했다.

중국 방문에 앞서 모디 총리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지난해 시 주석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시안은 현장법사의 인도여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시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14일 시안에서 직접 모디 총리를 맞이한 시 주석은 "고향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즐거운 이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언론 역시 "중국 최고지도자가 수도 베이징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직접 외국 정상을 맞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시 주석의 모디 총리에 대한 대우가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현재 양국 관계는 민족 부흥의 역사적인 기회를 맞았다"며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모디 총리가 제안한 '동방정책'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또 상호신뢰 강화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잘 통제해나가자고 요청했다.

모디 총리는 중국과의 무역관계 지속 강화를 제기하며 "AIIB 틀 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밀접하게 진행할 것이며 AIIB는 이 지역의 국가 경제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 프로젝트가 더 진척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중 이틀째인 15일 모디 총리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공식 회담을 한다. 16일에는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경제인들과 인도 투자유치 등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중국 산시성 시안의 사찰인 '대자은사'를 14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둘러보고 있다. 신화/뉴시스



플레이 메이트들과 포즈 '부전자전' 플레이보이 2세

미국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창간자인 휴 헤프너의 막내 아들 쿠퍼(가운데)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올해의 플레이 메이트'로 선정된 대니 매더스(쿠퍼의 오른쪽) 등 플레이 메이트들과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56번째 플레이 메이트로 선정된 매더스는 10만 달러(약 1억895만원)의 상금과 함께 미드나잇 블랙색상의 '2015 미니쿠퍼S 컨버터블' 1년 리스권을 받았다. 플레이 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누드모델을 일컫는다.

LA/로이터연합뉴스

'10살' facebook, 새 파트너 평균 나이는 '107살'

'인스턴트 아티클스' 개시… 제휴사 NYT·애틀랜틱 등 150년 역사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새로운 파트너들의 평균 나이가 107살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9개 언론사와 제휴한 '인스턴트 아티클스(Instant Articles feature) 서비스를 개시했다.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뉴욕타임스(NYT)·내셔널지오그래픽·버즈피드·NBC·애틀랜틱 매거진·가디언·BBC·슈피겔·빌트 등이다. 이 가운데 설립된 지 4년 된 버즈피드를 제외하고 NYT, 가디언, 애틀랜틱 등은 각각 설립한 지 150년이 넘는 뿌리깊은 언론사들이다.

인스턴트 아티클스는 페이스북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휴한 언론사의 기사를 바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평균 1초 이내에 기사 열람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해당 서비스를 아이폰 앱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체제(OS)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보려면 링크를 눌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접속해 그곳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스 서비스는 언론사에 장·단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론사는 독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직접 뉴스를 보게 됨에 따라 접속 건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페이스북에서 일정 비율의 광고 수익을 분배해 수익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에이본, 유령 인수설에 주가 20%까지 폭등

〈세계 최대 화장품 방판업체〉

PTG캐피털 사칭해 인수 신청
"주가 상승용 유령오퍼" 추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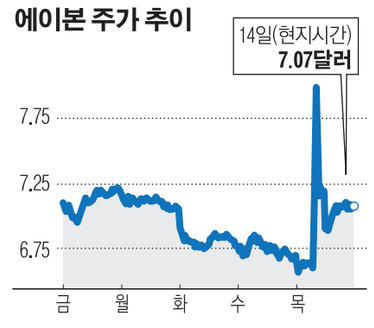
세계 최대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인 미국의 에이본 프로덕츠가 근거 없는 인수설에 휘말려 주가가 하룻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에이본의 주가는 한때 20%까지 폭등하며 거래가 중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영국계 투자회사인 PTG캐피털이 에이본에 대해 주당 18.75달러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루머가 퍼진 영향이다. PTG캐피털이 제안한 인수가는 당시 에이본 주가의 3배 수준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에 따르면 SEC에 신고된 문서에는 PTG캐피털이 에이본 이사회에 인수안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지만, 인수안을 제시했다는 기업의 이름이 두 차례에 걸쳐 'TPG'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로펌의 이름이 실려있는 등 의문점 투성이였다. 이에 SEC는 PTG캐피털의 에이본 인수 신청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근거없는 루머가 나돌자 에이본은 즉각 이메일 성명을 통해 "PTG캐피털파트너스를 사칭하는 기업이 SEC에 신고한 것과 관련, 우리는 그런 기업에서 어떠한 제안도 연락도 받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기업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에이본의 해명 성명에 의혹이 다소 풀리면서 급등하던 주가는 상승폭을 줄였다. 일일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아 한때 중단됐던 에이본은 거래가 재개됐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뛴 7.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스티븐 벨갓 이벤트 드리븐 조사 책임자는 "신고가 진짜일 확률은 2% 미만"이라며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EC 신고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주요 연락처로 기재된 스티브 코라는 회사 자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바로 자동 응답기로 이어졌다. 또한 회사 관계자인 트로스앤콕스의 마이클 트로스에게도 연락했으나 엉뚱한 여성이 전화를 받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령오퍼'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SEC 공시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시됐다. SEC는 전자공시시스템인 'EDGAR(에드가)' 공시 주체에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하면서 사전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中, 올해 지하철 750㎞ 연장한다

다롄 등 5개 도시에 새 노선
공해 완화·부동산 활기 의도
지하철 길이 총 3750㎞ 달해

중국이 지하철 노선 개통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지하철 길이를 전년보다 750㎞ 연장할 계획이며 이는 1년간 연장된 거리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1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지하철 총 길이는 3750㎞에 이르게 된다. 올해 한 해에만 일본의 현 지하철 길이인 800㎞에 육박하는 구간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올해 다롄 등 5개 도시에서 새 노선이 개통된다. 한편 베이징과 상하이 등 14개 도시는 기존 구간을 연장한다.

다롄은 이달 중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2호선 시험운행이 시작되며 6월 남북을 잇는 1호선 일부가 영업을 개시한다. 2016년 말에 총길이 66㎞에 이르는 전 구간이 개통되며 이후 7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롄 이외에도 난창과 푸저우 등에서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가 총 30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공해를 잡고 경기도 부양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중국은 자가용 보유 대수가 1억 2000만대를 넘어 교통혼잡과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롄이공대 교통운수과의 자오성촨 교수는 "교통편이 불편한 교외에 지하철역이 증설되면 장기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사무실, 상가 등이 개발될 것"이라며 "이는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계획이 효과를 보려면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통근수당 일부 비과세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교통비가 나오는 정책을 바꾸는 등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브릭스' 만든 짐 오닐, 英 재무차관 변신

'슈퍼버그' 혁신펀드 조성 전망



'브릭스(BRICs)'의 창시자 짐 오닐〈사진〉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영국 재무부 상무담당 차관으로 임명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는 오닐을 상무담당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오닐 차관은 사회기반시설 향상과 경쟁 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오닐은 지난 2001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브릭스(BRICs)'란 용어를 만들어 유명세를 탔다.

오닐 차관의 첫 임무는 20억 달러(약 2조 100억원)의 '슈퍼버그(초강력 박테리아)' 혁신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로부터 슈퍼버그 문제는 다루는 '항균성 저항에 관한 검토(AMR)'팀을 이끄는 책임을 부여받은 바 있다. AMR팀은 유럽에서 한해 약 3만명이 이미 항생제 저항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슈퍼버그 사망자가 2050년에는 1000만명까지 증가해 세계 경제에 100조 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오닐 차관은 기존 항생제의 효과가 더이상 없어지면서 맞게 될 재앙을 '금융위기'에 비교하며 제약업체들의 혁신펀드 자금 제공을 촉구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기고

윤 은 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국방안보와 다우트 증후군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고대 중국의 병서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군 관련 소식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현직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고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잃어버린 공군의 명예와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 군을 성토하는 내용이다. 비리를 두둔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여 성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 제기 방식에도 인간심리를 파고드는 감성적 요인들이 깔려 있다.

장군과 그 가족들이 사병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장군도 인간이고 사병도 인간인데 왜 차별하느냐는 평등의식을 깔고 의혹을 제기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는 합법적 계급사회다. 위계질서가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평등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군대의 위계질서까지 평등권의 훼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군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10여 년 전의 일부터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정 비리의 고발이라기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의도적 비난공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생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군 장성들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몰이로 성토하고 그 여론에 밀려 불명예스럽게 사퇴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인가?

군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조직도 비리가 있으면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사회정의에 입각해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회정의와 나라사랑 정신이 깔려 있어야 한다.

지금도 공군은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고, 특히 조종사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훈련을 하고 비상대기실에서 긴장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국방안보는 군의 단결과 사기, 그리고 민과 군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가장 막강해진다. 그래서 군의 단결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민과 군의 신뢰를 이반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최근 대학로에서 '다우트(Doubt)'라는 연극을 봤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는 인간심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신뢰가 무너진 현대사회를 절묘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광우병 실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심리가 바로 다우트증후군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못하는 '다우트증후군'이 만연되고 있다. '다우트 국가'에서 '신뢰 국가'로 변화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다우트증후군이 만연되어 국가안보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반드시 피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경쟁은 선이고 독점은 악인가

독점기업은 반드시 나쁜 것인가? 상식과는 달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면 '독점'이 반드시 나쁘다고 성급히 결론짓기가 힘들다. 먼저 독점기업의 경우, 가장 문제시되고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은 바로 '독점적 이윤'일 것이다. 즉,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없는 관계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R&D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질병을 극복할 새로운 신약, 예를 들어 '타미플루'를 개발한 결과 '독점기업'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적 이윤은 불확실한 R&D투자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기업들의 성패는 R&D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새로운 제품개발로 연결되는 R&D는 점차 그 규모가 막대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느 기업이 R&D를 통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R&D 개발에 투입한 엄청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미로 '특허(Patent)'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동종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금지해 버린다.

즉, 법률적으로 해당 기업을 일정 기간 '독점기업(Monopoly)'으로 오히려 그 지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만일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아무도 막대한 R&D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자. 최근 창조경제 등의 영향으로 모두 구글 또는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창업하려 한다. 왜 그러한가? 바로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해당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인 페이팔(PayPal)을 창업한 피터 틸(Peter Thiel)은 그의 유명한 저서 'Zero to One'에서 "0에서 1이 되려면 창조가 필요하다"고 갈파한다. 앞으로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OS)를 만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는 구글(Google)이 될 수 없는 등 현재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독점'이 바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독점을 악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은 결국 '독점'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받느냐의 문제다. 고대 중국 한(漢)나라 때 벌어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염철논쟁(鹽鐵論爭)'이 바로 국가가 독점해 온 '소금, 철, 술' 등의 사업을 민영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독점할 것인가의 논쟁이다. 이 논쟁을 정리하면, 정부의 입장은 소금, 철 등의 민영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거대화하는 것을 막고, 또 이 전매사업을 국가가 독점함에 따른 독점이익으로 흉노와의 전쟁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민간의 입장은 염철의 민영화야말로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본으로, 염철 등 독점사업의 민영화를 통해 독점이익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한나라 정부의 대(對)흉노 강경책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전쟁을 중지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군비를 국가경제에 환원시키자는 논리다.

결국 수단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 문제로 귀결된다. 돈을 버는 수단, 예컨대 독점이란 형태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그 독점의 결과가 사회에 얼마나 유용하였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들은 독점적 지위에 준하는 시장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독점적 지위에 걸맞게 세계시장과 경쟁할 새로운 제품의 R&D 개발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가? 혹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손쉬운 사업들에 더 열중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들은 제2의 삼성이나 제2의 현대를 꿈꾸며 열심히 창업한 신생기업이 순조롭게 커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기업토양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기대치보다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이 재벌들을 끊임없이 규제하자는, 그리하여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자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로 보인다.

하루 한생각 5월 15일

訓民正音(훈민정음)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한글

5월 15일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 임금의 생일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1443) 계해 12월 30일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중략)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과거시험에 내게 했다. 세종 28년(1446) 12월 26일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하였다.

이듬해에도 세종은 "함길도(함경도) 자제로서 관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세종은 대간(臺諫)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기도 했다.

숙종은 '훈민정음 후서(後序)'에서 이렇게 상찬했다. "삼가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타고난 성스러운 자질이 요순보다도 높아 예악과 문물이 찬란히 구비되었는데도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함을 우려하셨다. 그리하여 정사를 돌보시는 여가에 새로 28자를 만들어 밝게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으니 대개 쉽게 배워 날로 쓰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중략) 이는 진실로 대성인(大聖人)이 하시는 바는 그렇게 만들려고 기필하지 않아도 지극한 도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아, 아름답도다. 아, 훌륭하시도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BAE 배국남 www.baekn.com

'집밥 백 선생' 요리연구가 백종원

배국남닷컴은 최근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만났다.

백종원은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프로그램 '집밥 백 선생' 제작발표회에서 예능대세로 사랑받고 있는 것과 관련 "시청자들께서 솔직한 면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나의 편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 면을 좋게 봐 주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종원은 방송인이 아닌데도 예능에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한식 인력이 부족하다"며 "제가 하는 요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집밥 백 선생'은 요리 초보인 김구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이 '백주부 집밥 스쿨'에 입문해 좌충우돌을 겪으며 점차 요리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19일 첫 방송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42년 만에 제자에 사과편지 쓴 선생님, 늦었지만 의미있네요



교편을 잡다 5년 전 교장으로 퇴직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42년 만에 제자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이 전직 교사는 더 많은 교사가 사과 편지 쓰기 운동에 동참해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네티즌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이런 교육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쁜 선생님도 많았지만, 좋은 분도 많았다. 도시락 나눠 주시며 챙겨 주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립네", "뒤늦은 사과네요. 어릴 때의 상처는 삶을 좌우하지요. 교사들, 애초부터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자기를 계속 점검하고 수양해야지. 특히 타인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내 기억 속 선생님은 무섭고 혼만 내는 사람. 졸업하고 10년 후 찾아가니 다 기억하시더라. 선생님도 마음속으론 제자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표현하기 어려운 듯", "요즘 학교 관련 뉴스 보면 폭력, 성범죄 등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이런 훈훈한 사연도 있군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도전

릴레이 기고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②



이 재 원

슈프리마 대표이사

이재원 대표는

- 1968년 서울 출생
- 서울대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사·석사, 전기공학부 박사
- 1997.08~10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연구원
- 1997~2001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모바일시스템 책임연구원
- 2000~ 현재 (주)슈프리마 대표이사
- 2009~ 현재 KITA(한국무역협회) 이사상사
- 2014~ 현재 KOVA(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주)슈프리마

- 2013.12 정부포상훈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 2013.11 Ernst & Young 최우수 기업가상 'Rising Star' 부문
- 2007.11 무역의 날 개발 유공자 부문 산업자원부 표창
- 2007.10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 표창
- 2007.07 중소기업인상 수출상
- 2007.07 제2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 2007.02 우수 수출중소기업인상 해외시장 개척 부문



사회생활 초반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 하는 일의 삼박자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제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나는 당시 지능형 차량시스템 연구를 맡았다.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고 보람과 기여라는 만족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동기 부여로 가득하던 때였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회사가 자동차 사업을 접으면서 나는 한순간에 하던 일을 멈춰야만 했다. 공허했다.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연구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 다른 분야로 배치가 됐던 나는 실망감과 함께 많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결론은 하나였다. 창업.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지금의 슈프리마다. 당시 대학원 그리고 직장동료들과 이 회사를 차렸다. 물론 사업이란 것이 쉽지는 않았다. 연구만 해왔던 우리들에게 영업과 마케팅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사업 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슈프리마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게 해준 것은 어느 날 의뢰가 들어온 지문인식 관련 연구 용역이었다.

이전 회사에서 지능형 차량 시스템 연구를 해왔던 나는 공통점이 많은 지문인식 연구에 점차 흥미를 느꼈다. 과거 내가 해왔던 연구와 기술적인 유사성이 커 사업 잠재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거다'하고 뭔지 모를 자신감과 함께 확신이 섰다. 이 분야를 파고들어가면 살 길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지문인식 분야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01년 슈프리마가 지문인식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자신감은 넘쳤지만 역시 사업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창업 당시인 2000년대 초반 지문인식을 포함한 국내 바이오 인식 시장은 200여개 이상의 많은 업체들로 포화상태였다. 시장 진입장벽은 물론 투자 유치의 문턱도 높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처음 6개월간 영업 성과가 없어 한동안은 사업에 대한 후회감도 밀려왔다. 엔지니어 출신인 내가 사업에 뛰어든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좌절감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학도로서 가졌던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문인식·바이오인식'이란 칼을 뽑아든 만큼, 무엇이든 베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뻔한 아이템과 뻔한 전략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 무언가 생각의 전환을 이뤄내야 했다. 아직 젊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생각의 전환은 간단한 곳에 있었다.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된다면 해외에서 팔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나로선 도전해 볼 만한 전략이었다. 기술력에 자신이 있던 만큼, 해외에서 계급장을 떼고 경쟁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국내에서처럼 접대 비즈니스에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 해외 바이어들은 내 생각처럼 슈프리마의 기술력에만 초점을 맞췄고, 결국 이를 인정받았다. 현재 슈프리마는 전 세계 130여개국, 1000여개의 고객 파트너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IMF 이후 회사서 사업 정리
진행 중이던 연구 물거품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면…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창업

진입장벽에 해외시장 먼저 승부
역으로 국내서도 1위 자리매김
이젠 '사회적 책임'도 고민하며
'사람 중심의 회사' 만드는 게 꿈

회사가 미주·유럽지역을 필두로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자, 역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도 높아졌다.

아이러니하게 과거에 높은 장벽을 실감했던 국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1위 업체의 명성을 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겪다 보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후배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일단 도전하라'는 얘기다.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된다. 슈프리마의 창업도 그렇게 이뤄진 것이고, 선(先) 해외 진출도 그러한 공격적이고 자신감을 놓지 않은 자세가 이끌어낸 쾌거 아닌가.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 벤처인들에게 두려움 중 하나인데, 사실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

나도 과거에 영어를 잘 하지 못했음에도 직접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며 계약을 이끌어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해외 바이어들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에 대한 장벽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처럼 대규모 판매 계약이 아닌 만큼, 언어는 차후의 문제다. 나가서 부딪치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한편, 창업 이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슈프리마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하게 됐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며, 이는 단순히 보여주는 기부와 봉사와 같은 대외활동에 앞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나는 슈프리마를 사람 중심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당시의 기업가정신이 아니었나 싶다.

내 경영철학의 핵심은 '후대에 남는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길을 개척해 주는 선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슈프리마가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청사진이다.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캐피털(VC)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슈프리마와 같은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창업에 도전했다. 초기엔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돈에 대한 열망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는 나는 기업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 그런데 기업가정신도 내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진화한 것 같다. 그때 보지 못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도 생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는 자세, 그것이 나와 회사를 발전시켰던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단기간의 성과만을 좇아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창업의 성공 방정식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열정과 과감한 투자를 승부수로 던지면서 바이오 인식 분야의 대명사격 기업으로 끊임없이 도약해 나아갈 것이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未공개정보, 개미들의 무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내부자 정보를 유출한 애널리스트, 기자(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펀드매니저와 기자 친구 등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의도성'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주식를 투자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 범위도 넓어져 회사 내부 정보는 물론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 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주운 서류를 보고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주식을 매입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내부자정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3차 정보 수령자 이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미공개 정보의 3차 정보 수령자가 실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주식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공통점은 내부자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듣고 투자에 나선 경우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상당수가 손실을 보는 경우 열에 아홉은 주변에서 들은 정보에 의존한 경우다.

주식시장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해본 투자자라면 '나에게 올 정보면 이미 삼척동자가 아는 정보이며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오죽하면 주식투자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겠는가.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선취매한 투자자들의 매도가 뉴스를 접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매수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메신저, SNS의 대중화로 3차 정보 수령자 단계는 이미 주식투자를 하는 주변 지인 한두 사람에게만 물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아볼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으며 그 정보만 듣고 매수한 경우 열에 아홉은 손해를 본다.

영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정보를 하루 전 먼저 취득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떼돈을 벌었지만 3차 정보 수령자가 돈을 벌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차 정보수령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된 내부자 정보 처벌법이 시행된다. 실제 수익보다는 손해로 직결되는 정보를 갖고 열에 아홉 손해보다가도 한 번 우연히 수익이라도 얻게 되면 이제 전과자로 전략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위 '좋은 종목'에 항상 목말라 있다. 하지만 법은 이제 99번 손해를 봤어도 단 한번이라도 수익을 보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도하지 않게 접한 '소문'에 근거해 투자를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기회에 근거 없는 미공개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skj78@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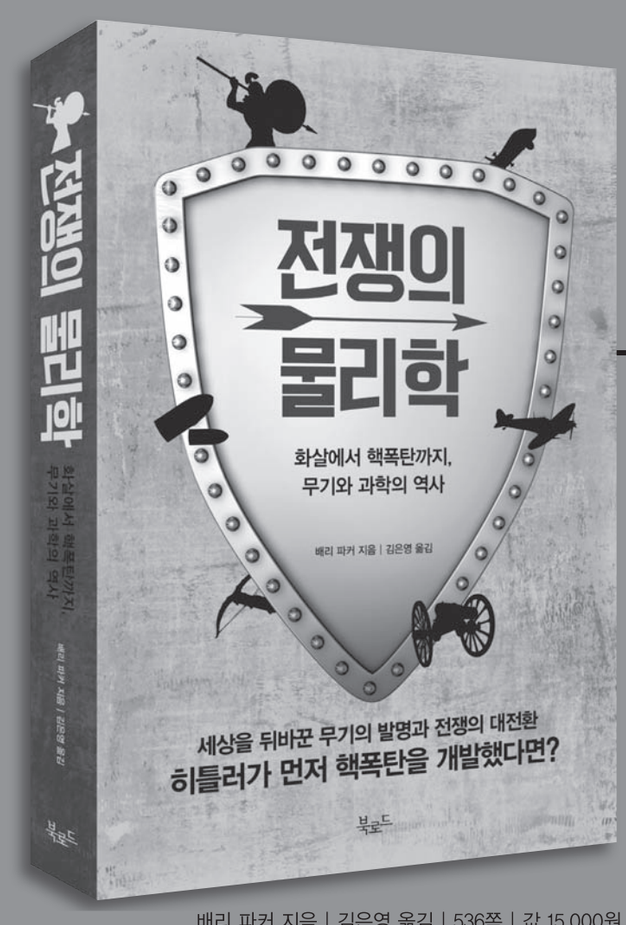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세상을 뒤바꾼 무기의 발명과 전쟁의 대전환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세상을 뒤바꾼 신무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전쟁과 **무기**, **과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전쟁의 역사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조명한다. _벤저민 긴스버그(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 《폭력의 가치》저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전쟁과 물리학의 다양한 원리들! _《워싱턴 타임스》

생기 넘치는 역사책. 저자 배리 파커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_《미드웨스트 북 리뷰》

기초물리학 이론이 전쟁 무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_《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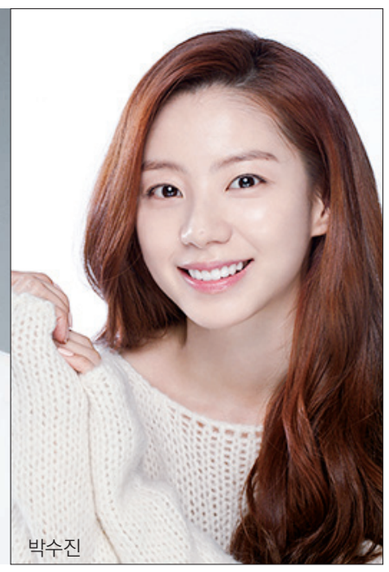
물리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무기의 역사, 전쟁사 _《세계일보》

배리 파커 지음 | 김은영 옮김 | 536쪽 | 값 15,000원

'욘사마' 배용준 "품절남 합류합니다"

걸그룹 출신 배우 박수진과 소속사 선·후배서 연인으로 올 가을 부부의 인연 日 언론 '배용준 결혼' 속보


배용준


박수진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이 올 가을 부부의 연을 맺는다.

두 사람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용준과 박수진이 올해 가을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으며, 올해 2월부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키이스트는 "배용준은 밝은 성격과 깊은 배려심을 가진 박수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고, 박수진 또한 배용준의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에 신뢰와 사랑을 갖게 되어 연인관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또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아 대화가 잘 통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확신을 가지게 돼 최근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재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모두 받은 상태로 올 가을쯤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식 일정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도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날 일본의 닛칸스포츠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닛칸스포츠는 '배용준 결혼! 올 가을, 여배우 박수진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으로 장식했다. 닛칸스포츠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배우 박수진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다. 박수진은 지난해 봄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로 이적했으며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였다가 올해 2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고 보도했다. 일본 네티즌은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300여개의 댓글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로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은 한류스타 배용준과 올해 가을 한국의 아이돌 그룹 슈가 출신 여배우 박수진이 결혼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속보를 냈다.

배용준은 1994년 KBS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데뷔했으며, 1995년 KBS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02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 출연해 배우 최지우와 함께 아시아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박수진은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해 활동한 후 2006년 연기자 겸 방송인으로 전환해 활동했다. 현재 박수진은 올리브TV 예능프로그램 '테이스티 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농촌 일손돕기' 첫 공식 행사 나선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농부의 마음으로 협동조합 임무 매진"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 첫번째)과 임직원들이 14일 강원 홍천 왕대추마을에서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행사를 농촌 일손돕기로 시작했다.

농협금융 임직원들은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홍천 동면 왕대추마을을 찾아 일손돕기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용환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모내기 및 브로콜리 순 따기 등 일손을 도왔으며, 기계 모내기와 구석구석 손길이 필요한 손 모내기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김용환 회장은 오전 모내기 작업을 마치고 마을 노인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농촌 출신이지만 오랜만에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땀을 흘려보니 매우 뜻 깊었고, 농협금융의 뿌리가 농업·농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인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스키인의 날' 행사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평창서 스키 첫메달 따도록 전폭 지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키 종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평창올림픽 개막 1000일을 앞두고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내고 동계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프리스타일과 스키점프에 각각 한 명씩인 외국인 지도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코치와 트레이너 등 전담팀 운영을 통해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신 회장은 6개 스키종목(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스노보드·프리스타일·노르딕복합) 2015~2016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된 45명을 향해 "국가대표는 개인에게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며 "높은 목표를 꿈꿔달라. 대한스키협회가 곁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회장 외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투자보고서 쉽게 쓰자" 편집국 만드는 한화증권

비문·전문용어 표현 고치려 경제지 현직 논설위원 영입 주진형 대표 페북 통해 밝혀



한화투자증권이 사내에 '편집국'을 설치한다. 증권사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외래어, 문법 파괴 행위는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묘책으로 편집국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회사 내에 편집국을 만든다"며 "한국은행을 거쳐 언론인 경력을 가진 분을 편집국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편집국장으로 내정된 인물은 모 경제지의 현직 논설위원 이모씨로 알려졌다.

주 대표가 증권사 최초로 사내 편집국을 세우는 이유는 증권사의 연구 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 등 고객에게 전하는 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주 대표는 "비논리적 문장이 횡행하는 한국 증권가의 리서치 보고서를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없앨 것"이라며 "알아듣기 어려운 문장으로 쓴 고객 안내문이나 상품 설명서도 이제는 끝"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의 보고서나 금융상품 설명서 등에는 우리말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나 영어식 전문용어, 업계식 표현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상승폭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 아웃바운드 +20.6%, ○○투어 PKG +27.3%, FIT 포함 전체 송객 +35.0% 성장했다' 등의 표현이다.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말 대신 '이머징마켓'(신흥시장), '리스크'(위험), '마진'(이윤) 등의 외래어를 쓰는 것이 익숙한 행태다.

주 대표는 2년 전 부임 직후 비논리적인 문장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보고서를 없애버린 바 있다. 그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개조식 보고서, 속칭 직땡 보고서가 한국 조직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보고서를 남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래서 개조식 보고서를 폐지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학생 장학금 전달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학생 483명에게 장학금 2억4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다문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09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20명, 사이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14명으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총 30개국 483명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은행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최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장서희, 홍콩 사회공헌 프로젝트 홍보대사 위촉



한류스타 장서희가 국내 중소기업의 중화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한류마케팅에 적극 나선다. 코트라는 14일 서울 서초구 사옥 국제회의장에서 배우 장서희를 '한류스타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홍콩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서희는 20~21일 이틀간 홍콩에서 열리는 '한류스타 패션·뷰티 융합 수출로드쇼'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코트라

'희망항해' 김승진 선장, 무동력 요트로 세계일주 성공

4만㎞ 바닷길 단독 항해 세계 6번째, 국내선 최초 "내일 왜목항 귀항" 연락

김승진(53) 선장이 세계에 6번째로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에서 '아라파니호'를 타고 항해에 나선 김 선장이 오는 16일 왜목항으로 귀항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선장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일링 요트를 타고 적도를 지나 피지, 칠레 케이프 혼,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을 거쳐 다시 왜목항으로 돌아오는 4만1900㎞ 바닷길을 홀로 항해했다.

현재 무사히 서해에 진입한 아라파니호는 귀항 일정에 맞추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김 선장의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 도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도를 2회 이상 지나고, 모든 경로를 한쪽으로 통과해야 하며, 항해거리가 4만㎞ 이상이어야 한다.


김승진 선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에서 '아라파니호'를 타고 항해에 나서 4만1900㎞ 바닷길을 돌아 세계에 6번째로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당진시

지금까지 세계에서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 김 선장은 세계 6번째이자 국내 첫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 성공자다.

2001년 요트에 입문한 김 선장은 앞서 2010~2011년 유럽 크로아티아에서 한국까지, 2013년부터 카리브해에서 한국까지 요트로 항해했다.

이번에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취지에서 '희망항해'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일주를 떠났다. 그는 KBS '도전 지구탐험대', '환경 스페셜'을 제작한 다큐멘터리 전문 프리랜서 PD다. 다큐멘터리 PD로 일한 경력을 살려 항해 전 과정을 스스로 촬영해 소중한 항해 기록을 남겼다.

박상영 기자 sypark@

아주복지재단 네팔 지진 성금 3700만원

아주그룹 비영리재단인 아주복지재단은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국제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700만원을 15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아주산업, 아주캐피탈 등의 계열사와 임직원 1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이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아주복지재단은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과 2011년 일본 대지진 참사,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국내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아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지진 피해로 희생하신 많은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나마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큰 어려움에 처한 네팔 국민들이 힘을 얻고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이뤄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인사

◆이투데이 △논설위원 겸 대중문화 전문기자 배국남 △산업국장 부국장 선년규 △온라인국장 직무대행 부장 한지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 심동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사무처 통일정책자문국장 신용운

◆쌍용건설 〈승진〉 △부사장 김동진 △전무 안국진 △상무 조현 이경석 △상무보A 이건목 김민경 김준헌 김한종 전용봉 안재영 △상무보B 손진섭 차윤섭 이상돈 〈신규선임〉 △상무보B 이상엽 박승철 김덕진 신재혁 이덕수 이종현 김재진 김희범 유종식 하종욱

부음

▲김재균(18대 국회의원)씨 별세, 김종철(박혜자 국회의원 비서)·지원(주부)씨 부친상 = 14일, 광주역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64-4444

▲심우섭(영화감독)씨 별세 = 14일, 부천장례예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 032-651-0444

▲최종민(전 국립창극단장)씨 별세, 최훈(원픽처스 대표)·란경(동편제 이선유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인(삼성문화재단 홍보팀 수석)씨 부친상 = 14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9

▲정형규(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씨 모친상 = 14일, 여수 성심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61-650-8444

▲유성준(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주무관)·진희(광주 비아중 교사)씨 모친상, 김영천(대신증권 목동지점장)씨 장모상 = 14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62-231-8902

▲임영규(KJtimes 대표) 장인상 = 14일, 경기 평택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31-666-3400

▲김동일(경기일보 북부취재본부장)씨 장인상 = 14일, 전주 우전성당, 발인 16일 오전 10시, 063-223-8291



김성갑·유이 부녀

2·3세 연예인·스포츠 스타 봇물

차두리 국대 은퇴식서 "아버지 차범근 보며 최선 다했다"
하정우 "아버지 김용건은 친구이자 선배이자 최고의 스승"
연예인·스포츠 선수 사회적 위상 높아지자 대물림 적극적
자녀도 부모로부터 노하우 얻고 후광효과 유리하게 작용

아버지에 안긴 아들은 진한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차범근)는 위대한 선수였고 나는 아버지를 보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사랑해주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은퇴식을 가진 차두리 선수다.

아들은 늘 아버지의 헌신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한다. "아버지(김용건)는 친구이자 같은 길을 가는 선배이며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의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스크린 스타로 그리고 영화감독, TV연기자로 대중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은 하정우다.

최근 들어 하정우나 차두리 같은 2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늘고 있다. 최고 한류 스타인 김수현은 그룹 세븐돌핀스 출신 가수 김충훈의 아들이고, 중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 한류스타 장나라는 연극배우 주호성의 딸이다. 영화와 뮤지컬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조승우는 1980년대 최고 인기가수 조경수의 아들이다. 견미리와 두딸 이유비·이다인, 김용건과 두 아들 하정우·차현우, 백윤식과 두 아들 백도빈·백서빈 역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이대현의 딸은 연기자 이하나이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딸은 가수 크리스 레오네다. 송일국·김주혁·허준호·박준규·남성진은 부모의 뒤를 이은 2세 연예인 대표주자다.

최근 들어 3세 연예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3세 연예인 스타 최민수의 아버지 최무룡과 어머니 강효실은 1960~1970년대 은막과 브라운관 스타였고 최민수의 외조모부 강홍식과 전옥은 일제 강점기부터 1960대까지 활동한 은막의 스타다. 독고성-독고영재-전성우, 이예춘-이덕화-이지현, 김승호-김희라-김기주 등 3대가 이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아라의 전보람의 경우, 조부모인 황해-백설희는 연기자와 가수로, 부모인 전영록-이미영 역시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전형적인 3대 연예인 집안으로 유명하다.

차범근-차두리처럼 스포츠계에서도 부모의 뒤를 이어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불세출의 농구스타 허재의 아들 허웅은 원주 동부소속의 프로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이정후와 송우현은 각각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린 아버지 이종범과 송진우의 뒤를 이어 야구선수의 길을 걷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윤학길의 딸 윤지수는 펜싱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스타 탁구선수로 명성을 날렸던 안재현-자오지민 부부의 아들 안병훈은 프로골프 선수로 뛰고 있다.

이밖에 한국 피겨선수로 활동했던 이인숙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수많은 한국 기록을 갖고 있는 아들 이규혁을 비롯해 스포츠 선수로 활동했던 부모의 뒤를 이어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자녀들이 많아졌다.

또한 연기자 조재현의 아들 조수현은 쇼트트랙 선수이고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최윤겸의 아들 민호는 샤이니 멤버로 활약하고 있고, 야구선수 출신 김성갑의 딸 유이는 가수와 연기자로 맹활약하는 등 연예인 부모를 둔 스포츠 선수들도 많아졌고 스포츠 선수 부모를 둔 연예인도 늘고 있다.

이처럼 2, 3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의 변화이다. 부모 때에는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직업이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연예인 혹은 스포츠 선수를 꼽고 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연예계와 스포츠계 진출을 막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식들의 성공적인 뒷바라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또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끼와 재질만 있다면 연예계-스포츠 선수로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밖에 가정에서 부모들의 연기를 보거나 노래,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분위기에 젖어들어 진로를 연기자나 가수, 스포츠 선수로 정하는 것도 2, 3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증가에 한몫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예인-스포츠 선수 부모를 뒀다고 해서 자식들이 연예계와 스포츠계 진출에 성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연예인-운동선수 가족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수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2세들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진출했으나 대중의 외면을 받아 부모의 자리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좌절하고 연예계-스포츠계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정우·차두리처럼 부모의 명성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는 2, 3세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매우 드물다.

분명 일반인들보다 연예인 운동선수 2, 3세들의 연예계-스포츠계 진출은 유리하다. 연예계-스포츠계의 메커니즘에서부터 대중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일반인 지망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훨씬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연예계-스포츠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자나 가수, 스포츠 선수 부모의 후광에 따른 홍보효과도 무시하지 못하는 유리한 이점이다.

이처럼 연예인-운동선수 부모가 연예계-스포츠계 출발의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적지 않게 스타와 유명선수로 가는 길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부모가 정상의 톱스타였다면 더욱 그렇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체적, 문화·스포츠적(연기와 노래, 운동) 자질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특성과 재능, 명성의 상속에 대한 부담감은 일반 연예인들은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2, 3세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아버지는 위대한 산이다.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심지어 아버지 때문에 국가대표가 됐다는 말을 주위에서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차두리 선수의 말이나 "액션 연기의 대가인 아버지와 연기자의 길을 걷는 저는 평생 대중의 비교 평가를 받는다. 그게 숙명이자 엄청난 부담이다"라는 박준규의 언급은 2, 3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2, 3세 연예인들이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스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적 상속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뛰어넘어야 한다.

배국남 기자 knbae@



김용건·하정우 부자

김을동·송일국 모자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차두리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식에서 차두리의 아버지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차두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안아주고 있다.

같은 꿈을 꾸는 그들

후광인듯 자체발광… '★가족' 끼는 못속여

김수현·장나라·이루… 2세 연예인 급증
대중문화 인식·위상 변화… 3대도 속출
'홀로 선' 하정우·'시너지' 태진아 부자까지
방법은 달라도 재능·인기행진 "역시나"

이덕화, 최민수, 김주혁, 하정우, 조승우, 장나라, 이하나, 김수현, 이유비, 김동현…. 끝이 없다. 최근 들어 부모의 뒤를 이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2세 연예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중견 연기자 이덕화에서부터 어린 연예인 김동현에 이르기까지 2세 연예인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문화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3대가 연예인의 길을 걷는 3세 연예인도 속속 배출되고 있다. 연기자, 가수, 예능인의 길을 걷는 부모와 같은 분야의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이 각기 다른 연예 분야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도 있다.

최근 3세 연예인이 속속 대중과 만나고 있다. 연예인 3세 스타 중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 최민수다. 그의 아버지 최무룡과 어머니 강효실은 1960년대~1970년대 연기자로 명성을 날렸고 외할머니 전옥은 눈물의 스크린 여왕이었다. 악역 등 개성파 배우로 연기의 한획을 그은 독고성과 그의 아들 독고영재, 손자 전성우는 연기자다. 이예춘-이덕화-이지현, 김승호-김희라-김기주 등으로 이어지는 3대가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티아라 전보람의 경우, 조부모 황해-백설희는 물론, 부모 전영록-이미영까지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전형적인 3대 연예인 집안으로 유명하다.

2세 연예인도 부지기수다. 하정우, 조승우, 장나라, 김주혁, 김수현, 이하나, 이루, 윤상훈, 이유비, 서동균 등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예능인으로 활약하는 2세 연예인은 크게 늘고 있다. 2세 연예인은 크게 부모와 같은 길을 걷는 연예인이 있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구분된다.

두 아들 하정우, 차현우는 아버지 김용건처럼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고 백도빈, 백서빈과 아버지 백윤식 삼부자 역시 연기를 하고 있다. 두 딸 이유비, 이다인은 어머니 견미리처럼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무생의 아들 김주혁, 김용림의 아들 남성진 역시 부모와 같은 연기자로서 활약한다. 또한, 태진아-이루는 가수로 대중과 만나는 것을 비롯해 부모 자식이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

부모와 다른 연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2세 연예인도 있다. 가수인 아버지 김충훈의 아들 김수현은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싱어송라이터 이대현의 딸, 이하나는 연기를 하고 있다. 가수 조경수의 아들 조승우는 연기자와 뮤지컬 배우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등 부모와 자식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전보람의 어머니 이미영은 "딸이 어려서부터 연예인으로 활동한 할머니·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연예계 진출을 꿈꿨다"고 말했다. 연예인에 대한 인식과 위상변화, 막대한 수입창출, 부모로부터 연예인의 끼와 능력 등 신체적, 문화적 자질의 상속 등 여러 요인으로 2세 연예인이 크게 늘고 있는데 연예인의 데뷔 과정에서 2세 연예인과 부모들이 취하는 모습은 크게 엇갈린다.

연예계에 진출하며 부모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는 경우와 공개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아들이 원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 연기자로 자리를 잡겠다고 말하고 나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아무 말 안했지."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의 말이다. 하정우처럼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연예인 아버지의 존재를 대중과 대중매체에 전혀 알리지 않는 2세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태진아, 이루 부자처럼 데뷔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가수 아들 홍보에 적극적인 연예인 아버지도 있다.

2세 연예인 중 부모의 명성과 활약을 뛰어넘는 스타도 있지만 부모의 인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은 2세 연예인에 대해 데뷔할 때는 호기심으로 바라보지만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는 연예인 부모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등 냉정한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터뷰 '3대째 연예인 집안' 가수 전 보 람

"가수되려고 오디션 탈락 '수두룩'… 부모 명성 누 될까 부담이 더 컸죠"

3대째 연예인 집안. 할아버지(황해), 할머니(백설희), 아버지(전영록), 어머니(이미영) 심지어 동생(전우람)까지 연예인인 가족이 있다.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가수,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배우가 되겠다는 티아라의 전보람이다.

전보람은 조부모와 부모가 연예인이라서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쳤다. "부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고, 부모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고민이 있다고 남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 고민이 부모를 욕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전보람은 "부모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처음에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전영록)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내색은 안하셨지만 내가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반대는 안 하셨다.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셨다"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 이미영은 전보람의 가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전보람은 연예인 2세 혹은 3세라는 꼬리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고백했다. "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내가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욕' 먹는 것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았다. 하지만 티아라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누구의 딸'보다는 티아라 보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연예인 부모의 보이지 않는 후광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전보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만약 후광을 입었다면 그 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겠냐. 아마 편하게 데뷔하고 편하게 활동했을 것이다. 티아라로 뽑히게 된 것도 사실 보아의 춤을 춘 동영상을 보고 사장님이 러브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연예인이라 한데 모이기 쉽지 않다. 가족이 모이면 못다한 대화를 나누느라 웃음꽃을 피운다는 전보람이 티아라로 활동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전보람은 "성격이 살갑지 못하지만 가족과 대화는 즐겁고 행복하다. 활동할 때는 서로 모니터해주고 조언도 한다. 같은 연예인이니까 누구보다도 예리하다"며 웃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이덕화·하정우·조승우·이하나… 백보다 실력 '청출어람' 대표스타

무수한 연예인 2세들이 과거부터 연예계에 진출을 해왔지만 이 중 부모를 능가한 연예인은 많지 않다.

부모의 활동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친 연예인으로는 1960년대 개성파 연기자로 인기를 모았던 이예춘의 아들 배우 이덕화가 있다. 이덕화는 1973년 TBC 13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해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기활동을 펼치고 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의 아빠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송일국도 국회의원이자 배우 김을동의 아들이다.

영화 '추격자'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스타덤에 오른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는 배우 김용건이다. 하정우는 유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버지의 도움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스타가 된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배우 조승우는 가수 조경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가창력을 물려받은 조승우도 아버지의 후광없이 현재 뮤지컬 배우로서 원톱의 자리에 올라왔다.

이처럼 부모의 후광없이 부모를 넘어선 스타들의 특징은 실력으로 대중에게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중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후에 연예인의 2세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2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후광효과를 받았다.

단순히 연예인 2세라는 이유만으로 각광받던 시대는 지났다. 부모의 명성을 빌려 노골적으로 후광을 입으려 하는 2세 연예인들과 대비되는 이들의 모습은 스타를 꿈꾸는 많은 연예인의 2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넘치는 파워·테크닉… '★가족' 피는 못속여



스포츠 스타들에겐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있다. 탁월한 운동신경과 승부에 대한 집념이다. 무정한 세월 속에서 스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동물적 감각의 운동신경은 후대에서 다시 한 번 빛을 보고 있다.

차범근(61)·차두리(35) 부자가 대표적이다. 차범근은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로 손꼽힌다. 1978년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1989년 현역 은퇴까지 통산 121골을 넣으며 리그에서만 98골을 기록, 당시 빌리 립펜스(네덜란드)가 보유한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92골)을 경신했다. 이 기록은 1999년 스테판 샤퓌자(스위스)가 106골로 경신할 때까지 10년간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차두리는 차범근의 2남 1녀 중 둘째로 거스 히딩크(68)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눈에 들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2001년 11월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공격수로 뛴 것이 태극마크를 단 첫 출전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등 두 차례 월드컵을 경험했으며, 폭발적 스피드와 체력으로 주목받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해설위원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차두리 '차붐' 처럼 '차미네이터' 활약
허웅, 허재 슈팅력 닮아 '대학 신인상'
황재균·설민경, AG 첫 母子 금메달
안병훈·김재호 등 프로골퍼도 다수

그리고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는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노장 투혼을 발휘했다. 특히 16강 우즈베키스탄 전에서는 폭발적 돌파력으로 우즈벡키스탄 오른쪽 측면 수비를 무너트리며 손흥민(23·레버쿠젠)의 골을 도운 패스는 축구팬을 열광케 했다.

허재(49)·허웅(22) 부자도 대표적인 대물림 스포츠 스타다. 허재는 중앙대와 실업농구 기아자동차를 거치면서 1980~90년대 한국농구를 이끌었다. 특히 기아자동차 시절에는 슈팅 가드로 활약하며 강동희, 김유택, 한기범 등과 함께 '기아 왕조'를 구축, 농구대잔치 7회 우승을 달성했다. 프로농구에서는 8시즌 동안 통산 4524득점, 1148리바운드, 1572어시스트, 508스틸을 기록했다. 그의 등번호 9번은 영구 결번으로 처리됐다.

허재의 돌파력과 슈팅 능력을 그대로 빼닮은 허웅은 허재의 2남 중 장남이다.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14.1득점, 3.1리바운드, 1.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연세대를 2위로 이끌었다. 2012년엔 대학리그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연세대 졸업 후 지난해 말에는 원주 동부 프로미에 입단, 올 시즌 가드로 활약하며 41경기 평균 4.8득점을 기록 중이다.

종목은 다르지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황재균(28)도 체육인의 대를 잇고 있다. 그의 어머니 설민경(55) 씨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아버지 황정곤(55)씨 역시 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다. 황재균은 지난해 야구 대표팀으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국내 첫 모자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과거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 윤학길(53) LG 퓨처스(2군) 투수코치의 딸 윤지수(22·안산시청)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윤학길 코치의 강한 어깨와 큰 신장, 그리고 담력까지 물려받은 윤지수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 중국을 무너트린 당찬 기대주다.

스포츠 스타 2세 중에는 유난히 프로골퍼가 많다. 한·중 핑퐁 커플 안재형(49)·자오즈민(51)의 아들 안병훈(24)은 2009년 US아마추어골프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기대주다.

그 밖에도 김용희(59) SK 와이번스 감독의 아들 김재호(32), 김호철(60) 전 현대캐피탈 감독의 아들 김준(28), 여자배구 국가대표 출신 유애자(53)의 딸 박시현(27), 전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 선수 김준환(60)의 딸 김상희(32)도 프로골퍼로서 스포츠 스타 계보를 잇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인터뷰 '2대째 농구 집안' 前프로농구 감독 허 재

"허웅, 타고난 센스에 개인연습도 열심 드래프트 지명 포기 솔직히 아쉬웠다"

"80점 정도 주고 싶어." 허웅(22·원주 동부)을 평가하는 허재(50)의 점수는 비교적 후했다.

허웅은 2014년 프로에 뛰어들어 적응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쳤다. 울산 모비스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4경기 모두 출전해 평균 득점 8.25를 기록했다.

허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대학 선수시절을 보내고 프로에 입문해 적응이 빨랐으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80점을 줬어"라고 설명했다. 냉철한 감독이었지만 어느새 어엿한 프로선수가 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따뜻함이 넘쳤다.

허재는 또 "허웅은 개인 연습도 많이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 타고난 센스도 있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들로서의 허웅에 대해서는 "속도 깊고 생각도 어른스러워"라며 대견해했다.

처음부터 허웅을 농구선수로 키우려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있을 때 허웅은 농구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마침 허재도 전주 KCC의 감독을 맡게 됐다.

그는 "허웅의 의지가 강했지. 난 전혀 생각 없었어. 감독 첫 해라 정신도 없었고. 소질은 있었지. 이것저것 운동도 잘했고 축구감독이 스카우트하려고도 했으니까"라며 웃었다. 같은 길을 걷게 된 아들과 한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다. 2014년 프로농구 드래프트에서 KCC는 4순위 지명권을 얻어 허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재 감독은 김지웅을 데려갔다. 그는 "프로로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그래도 아쉬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라고 털어놓았다.

허웅이 항상 신경 쓰이는 허재지만 조언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소속팀 감독의 훈련 방향이 있어 허재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오히려 다른 감독이 가르치는 것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허웅도 스스로 보고 느껴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시즌이 끝나고 허웅은 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허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그는 "허웅이 빠르고 체력도 좋은데 몸을 키우면 좋겠어. 몸싸움하기가 수월해지니까"라고 설명했다.

허재에게는 허웅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둘째 아들 허훈(20)도 있다. 허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 '농구 명문' 연세대의 주전 가드를 꿰찼다. 허재는 듬직한 두 아들로 인해 늘 든든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체육돌' 샤이니 민호·AS 유이 알고보니 아버지가 프로감독

연예인 2세 스타만큼이나 스포츠 스타를 부모로 둔 2세 연예인도 많다. 샤이니 민호의 아버지는 최윤겸 강원FC 감독이다. 실제 최윤겸 감독의 벨소리는 샤이니의 노래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민호는 지난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에 출연해 화려한 축구 실력을 뽐냈으며 MBC 설특집 프로그램 '아육대'에서도 뛰어난 운동신경을 발휘했다.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의 아버지는 넥센히어로즈 2군 김성갑 감독이다. 데뷔 초 사실을 숨겨 온 유이는 결국 김성갑 감독의 딸임이 밝혀지자 이후 아버지의 소속구단인 넥센 히어로즈의 시구자로 나서는 등 든든한 아버지의 조력자가 됐다.

배우 박한별의 아버지는 예산FC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박채화 감독이다. 배우 소이현의 아버지도 1980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권투선수 조주연으로 알려졌다. tvN 예능프로그램 '재밌는 TV 롤러코스터'에 출연했던 배우 서효명의 어머니는 농구스타 박찬숙이다. 서효명은 박찬숙과 함께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정한 모녀 사이를 자랑했다.

이와 반대로 연예인 부모를 둔 스포츠 스타도 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을 획득한 방수현 선수의 아버지는 원로 코미디언 방일수다.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서 모습을 보인 배우 조재현의 아들 조수현도 쇼트트랙 선수다. 조수현은 2013년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남자일반부 3000m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당신의 비타민C는
중국산?
영국산?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만 쓰는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영국산 100% DSM 영국산 비타민C 원료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고객센터 080-277-0006 www.koreaeundan.com

스타, 스타를 말하다 강소라가 말하는 강소라

"허당기 가득… 저랑 똑 닮은 맞춤캐릭터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14일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똣'에서 이정주 역을 맡은 배우 강소라입니다.

제가 연기하게 된 이정주는 개미 같은 친구예요. 의류회사 총무부 직원으로 7년간 결근 한 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 온 인물이죠. 홧병에 걸려도 세상 다 아는 척하는 걸로 뻣뻣하게 방어막을 치는 강한 스타일이지만 속내는 정도 많고 여리고 순수

MBC 새수목극 '맨도롱…' 주연
제주도서 펼쳐지는 달콤 로맨스
5월의 봄날처럼 따뜻한 드라마
유연석과 호흡 너무 잘맞아 걱정

한 성격이에요. 어느 날 사촌동생이 친 대형사고로 인해 집도, 직장도, 연인도 잃고 제주도에서 건우를 만나 '맨도롱 또똣'에서 일하면서 변하게 되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드라마 제목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맨도롱 또똣'은 '기분 좋게 따뜻한'이라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5~6월 봄날씨처럼 따뜻하면서도 기분좋은 드라마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 같아요.

이번 '맨도롱 또똣'에서도 '미생'의 안영이처럼 회사원 역할을 맡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 이정주 캐릭터는 허당기가 있어서 실제 저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연기할 때 좀더 편안하고 제 자신을 좀 더 드러내놓고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유연석씨와 호흡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주변 분들이 "남자 배우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너의 모든 면을 다 드러내지 말아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제가 워낙 친화력이 과하다 보니 빠르게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찍을 때는 빨리 친해지면 애정 신을 찍을 때 어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이 친해져서 유연석씨랑 친구처럼 오빠처럼 상의하면서 연기하고 있답니다.

워낙 유명한 홍정은, 홍미란 작가님과 박홍균 PD님의 작품이기에 캐스팅됐을 때는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해 보니 그게 참 건방진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하는 협업인데 괜히 스스로 혼자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이제는 많이 내려놓았어요.

전작 '미생'이 직장인의 애환을 그려 공감을 얻었다면 '맨도롱 또똣'은 한 번쯤 누구나 꿈꿔 볼 만한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기분좋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 번쯤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드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니 밤에 시청하실 때 힘들더라도 참으셔야 해요.

글/오예린·사진/노진환 기자 yerin2837@



톡톡 튀는 예능감으로



해외서도 빵빵 터지네

이광수 韓中 합작 예능프로그램에
최시원은 '중국판 우결' 출연 확정
장서희·추자현·강타·장혁 등 인기
드라마·K-POP 이어 '예능인 한류'

한류 하면 드라마, 영화 혹은 K-POP이었다.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는 한류 성과의 전유물은 연기자, 가수의 몫이었다. 드라마와 음악 한류를 기반으로 배용준, 최지우부터 비, 이민호, 김수현, 박신혜, 빅뱅, 엑소, 소녀시대, 카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한류 판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바로 한류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예능 스타 주도의 한류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예능 포맷이 속속 중국 등에 수출돼 해외에서 관심을 얻으며 예능 한류가 본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예능 스타들이 직접 중국 등 외국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해 예능 스타 한류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CCTV에 KBS '도전 골든벨' 포맷이 판매된 이후 '미녀들의 수다' '강호동의 천생연분' '진실게임' 등 적지 않은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수출됐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슈퍼스타K' '나는 가수다' '1박 2일' '우리 결혼했어요' '아빠! 어디가'등 예능 포맷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되면서 중국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예능 한류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코엔엔터테인먼트가 중국CTV가 '엄마의 밥상'을 공동 제작하는 등 한국 제작사와 방송사와 외국 제작사의 공동 제작이 늘고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능 한류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예능한류의 기세는 엄청나다.

최근 들어 포맷과 프로그램 중심의 예능 한류는 이제 예능 스타 해외 진출 중심의 한류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런닝맨'의 이광수는 CJ E&M과 중국 후베이위성이 공동 제작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사랑한다면2'에 출연했고 최근 '무한도전'에 식스맨 후보로 시청자와 만났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장쑤위성의 '우리 사랑하기로 했어요'에 출연해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종국, 강타, 장혁, 조세호 등이 중국 CCTV '딩거룽둥챵'에 출연한 것을 비롯해 김희철('일루상유니'), 장서희('국색천향'), 추자현('명성도아가'), 한채영('1박2일') 등 수많은 스타들이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능스타 한류를 상승시키고 있다. 해외에 직접 진출해 고정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수현, 박신혜처럼 일부 한류스타들은 중국을 방문해 일회성으로 출연해 폭발적인 관심을 유발시켜 예능과 예능스타 한류에 일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MBC를 그만두고 중국 예능 콘텐츠 관련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스타 연출자인 '나는 가수다'의 김영희 PD는 "근래 들어 중국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한국 예능 포맷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예능 스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포맷이 인기를 끌면 당연히 예능 스타에 대한 관심도 고조돼 당분간 예능스타 한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는 "예능 스타의 한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쟁력을 지닌 한국 예능 포맷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 독창적인 예능 콘텐츠가 제작되고 중국과의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되면 예능스타 중심의 한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귀호강' 라인업

내일 부활·23~24일 이은미·성시경
실력파 가수들 라이브 공연 잇따라

5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가 이어진다.

축제의 달 5월을 맞아 가수들의 콘서트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부활, 이은미, 김경호, 성시경 등 실력파 가수들의 공연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본 티켓 판매가 80~90%가 이뤄질 정도로 공연계의 티켓파워, 흥행 보증수표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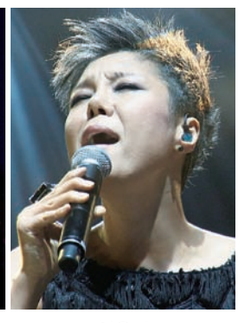
먼저 부활이 공연의 포문을 연다. 부활은 16일 오후 3시, 7시 30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사랑하고 있다' '투비원' 등을 비롯해 그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을 엄선해 부른다. 특히 박완규 등 부활의 보컬들이 꾸미는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는 오는 23일 오후 7시, 24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가슴이 뛴다' 콘서트를 연다. 4월 광주를 시작으로 창원, 대구에서 공연한 이은미는 서울 공연으로 2000여 명의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은미는 '애인 있어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어떤 그리움' '가슴이 뛴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을 비롯해 지난 2014년 3월 발매한 '스페로 스페레' 앨범 수록곡을 부른다.

김경호는 데뷔 21주년 전국투어콘서트 'PASSION21'로 컴백한다. 김경호는 오는 23일 오후 4시, 7시 30분 서울 상명아트센터 대극장(계당홀)에서



김경호



이은미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 대한민국 록의 자존심 김경호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비정' '금지된 사랑'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등의 히트곡을 부르고 전국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시경은 4년 전부터 브랜드 콘서트로 자리 잡은 '축가'로 돌아왔다. 성시경은 오는 23~24일 오후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라이브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도 타이틀이 '축가'인 만큼 봄날 야외 결혼식을 콘셉트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사연을 보내면 성시경이 읽어주는 코너와 스페셜한 이벤트 무대도 마련돼 있다. 성시경은 '거리에서' '내게 오는 길' '두 사람' '넌 감동이었어' '미소 천사' 등 히트곡은 물론 팝송까지 부를 예정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메시의 창 '바르샤'냐

딱 한경기 남은 UEFA 챔스리그

내달 7일 독일 베를린서 단판승부

준결승까지 28골 바르셀로나 '화력'

레알 무력화시킨 유벤투스 '수비'

양팀 모두 이 경기만 잡으면 '트레블'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진다.

바르셀로나는 6월 7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스타디온에서 열리는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유벤투스와 맞붙는다.

유벤투스는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1-1 무승부를 이뤘다. 이로써 유벤투스는 1차전(2-1) 승리를 더해 1·2차전 합계 3-2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바르셀로나는 13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4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2-3으로 패했지만 1차전(3-0) 승리에 힘입어 결승에 올랐다.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진정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리오넬 메시(28), 루이스 수아레스(28), 네이마르(23)를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였다. 메시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기록했고, 네이마르는 9골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바르셀로나는 결승에 오르는 동안 28득점으로 바이에른 뮌헨(33득점) 다음으로 높은 득점력을 선보였다.

이에 맞선 유벤투스는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한다. 4강에 진출한 네 팀 중 7실점으로 가장 적은 골을 내줬다. 안드레아 피를로(36),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29), 아르투로 비달(28), 폴 포그바(22)가 중원을 장악해 매끄러운 공·수 전환을 가능케 했다. 활동량으로도 상대를 압도한다. 총 13만5111m를 달린 스테판 리히슈타이너(31)를 비롯해 지오르지오 키엘리니(31)와 비달이 활동량 상위권을 휩쓸었다. 피를로(9.7㎞)도 경기당 평균 10㎞에 육박하는 활동량을 소화하며 노장의 연륜에 체력을 더했다. 카를로스 테베즈(31)와 알바로 모라타(23)로 공격에도 힘을 더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트레블 달성(리그 우승·FA컵 우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어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90점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5일 펼쳐지는 스페인 FA컵(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는 빌바오와 맞붙는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하면 바르셀로나는 통산 5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유벤투스는 이미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확정했다. 승점 80점을 획득한 유벤투스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4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탈리아 FA컵(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는 SS라치오를 상대한다. 상대 전적 5승 3무 1패로 앞서는 유벤투스의 FA컵 우승이 유력하다. 유벤투스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2002~2003시즌 이후 12년 만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피를로의 방패 '유벤투스'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득점왕 메시'



현재 10득점 호날두와 공동선두

팀 동료 네이마르 9골로 '복병'

(28·FC 바르 2014~2015 유럽축구연 피언스리그 득점왕을 예약 일(이하 한국시간) 현재 유 승전(6월 7일)만 남겨놓은 점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 드리드)와 득점 공동 선두 다. 루이스 아드리아누(28· 네츠크)와 네이마르 다 실 르셀로나)는 각각 9득점이 흐타르 도네츠크는 8강에 레알 마드리드는 결승 진출 리아누와 호날두의 득점 행 점과 10득점에서 멈췄다. 즌 UEFA 챔피언스리그 득 메시의 결승전 활약에 의해 최소한 공동 득점왕을 확보한 메시는 유벤투스와의 결승전에서 한 골만 넣어도 단독 득점왕에 오른다.

물론 복병도 있다. 팀 동료 네이마르다. 네이마르는 13일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4강 2차전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메시와 호날두와의 득점왕 경쟁에 끼어들었다. 절정의 골 감각을 발휘하고 있는 네이마르가 결승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한다면 11골로 메시를 제치고 득점왕에 등극한다.

메시는 뮌헨과의 4강 2차전에서 자신의 득점보다 루이스 수아레스(28)와 네이마르에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 주며 뮌헨을 침몰시켰다. 결국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의 향방은 이들 'MSN 삼각편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메시의 득점왕 등극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이마르와 수와레스는 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메시에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페널티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메시의 발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시와 네이마르. 바르셀로나의 '안방싸움'으로 좁혀진 득점왕 선의 경쟁이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승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총 상금 8950억·중계료 5966억원

32강 팀당 148억… 라운드 더해지며 '+'

469억 확보 바르샤, 우승 땐 185억 추가

FC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막대한 우승 상금을 노린다.

바르셀로나는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해 이미 3800만 유로(약 469억원)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받은 수당으로만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상금 3500만 달러(약 385억원)를 넘어섰다.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면 유럽 최고의 팀이라는 명예와 함께 1500만 유로(약 185억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답게 상금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상금 총액은 7억2440만 유로(약 8950억원)다.

32강 조별리그에 진출한 팀에는 각 팀당 1200만 유로(약 148억원)가 지급되고, 조별리그 한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150만 유로(약 18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무승부를 기록하면 양 팀은 각각 50만 유로(약 6억17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 금액은 점점 커진다. 16강 진출팀에는 550만 유로(약 68억원)의 수당을 주고, 8강에 진출하면 600만 유로(74억원)를 얻을 수 있다. 4강 진출 수당은 700만 유로(약 86억원)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상금은 1500만 유로(약 185억원), 준우승만 해도 1050만 유로(약 129억원)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FC 바르셀로나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4억8290만 유로(약 5966억원)에 달하는 중계권료를 챔피언스리그 진출팀과 함께 나누게 된다. 중계권료는 리그마다 차등 지급된다. 리그 전체에 지급된 중계권료는 다시 각 클럽에 분배된다. 절반은 리그 성적에 따라 주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 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중계권료는 4억960만 유로(약 5060억원)였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주어진 약 6700만 유로(약 827억원) 중 2050만 유로(약 253억원)가 넘는 금액을 중계권료로 가져갔다. 준우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약 1700만 유로(약 210억원), FC 바르셀로나는 약 2100만 유로(약 2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약 817만 유로(약 100억원)가 지급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123
SESAME STREET
Dennis the Menace
ELMO
SESAME STREET
(주)데니스 www.dennisgolf.co.kr | www.dennismall.co.kr | 02-3481-2250

연예·스포츠계 스타 자서전·평전 잇따라



울고 웃은 인생사 들어보실래요

배우 60년 김성녀 '벽속의 요정'
가족사·무대인생 '32역 이야기'

송해 평전 오민석 교수 1년 집필
"잡지 못하는 세월 되새겼으면"

개그맨 서경석, 나름의 인생굴곡
23년 축구인생 정리한 박지성
'끝판왕' 오승환은 에세이 펴내

굴곡 많았던 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안정기를 찾게 되면 누구나 지나온 삶을 글로 남기고 싶어한다. 특히 올 상반기 출판가에는 다양한 스타들이 자서전과 평전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고했다.

배우이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김성녀는 자신의 배우 인생 60년을 결산한 자서전 '벽 속의 요정'(문학세계사)을 4월 발간했다. 김성녀는 자서전에서 가족사, 무대인생, 선후배 이야기, 그리고 연기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했다. '벽 속의 요정'은 김성녀가 2005년부터 공연한 1인 32역의 모노드라마 제목으로 김성녀의 다재다능한 재주와 다양한 인생과 잘 맞아떨어져 그의 자서전 제목으로 선택했다. 김성녀는 13일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자서전에 대해 "배우로서 제 삶에 여러 개의 다양한 파편이 있었다. 제 인생을 쭉 정리하다 보니 모노드라마처럼 다양한 삶을 열심히 살았더라. 그 파편이 '벽 속의 요정' 속 32역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 MC이자 현역 최고령 방송인 송해도 그의 인생사를 최초로 조명한 평전을 지난달 27일 정식 출간했다. 이 책은 영문학자이자 평론가인 단국대학교 오민석 교수가 1년여에 걸쳐 집필했다. 송해는 지난달 30일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완성된 책을 보니 인사말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중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초년시절 이야기로 갔다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적혀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송해는 평전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세월이라는 것은 잡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세월 가는 것만 알지 딴사람 세월 가는 것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번에 소중한 세월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송해 평전 '나는 딴따라다'는 기존 과거에만 집중되는 연대기식 평전이나 전기의 구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며 과거에 머무르는 인물이 아닌 여전히 현역인 송해를 평하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개그맨 서경석도 7일 자신의 자서전 '스물아홉 마흔둘'을 펴냈다. 열여덟에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한 후 중퇴했고 스물아홉에 늦깎이로 군입대를 한 서경석은 마흔두 살에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통해 다시 입대 통지서를 받았다. 세 번의 입영통지서를 받은 서경석은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극복하며 성장해 온 이야기를 총 4개 파트로 나누어 이 책에 담았다. 서울대 나온 엘리트 개그맨으로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 육군사관학교 중퇴 후 재수, 쉽지 않은 방송생활 등을 하며 자신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인생의 사건들을 솔직히 고백했다. 또한 아빠로 아들로 친구로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에피소드들도 공개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도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했다. 지난해 5월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한 박지성은 23년 동안의 선수생활을 정리한 '박지성 마이 스토리'(한스미디어)를 2월 출간했다. 박지성의 자서전 출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총 2부로 구성된 박지성의 자서전에는 책 이름에서처럼 그의 유년 시절 성장과정, 세 차례 출전한 월드컵 축구대회 뒷이야기, 유럽프로리그 진출 등 선수 시절의 기억들을 회고했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환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에세이 '순간을 지배하라'를 출간했다. SBS 스포츠 기자 이성훈, MK스포츠 기자 안준철과 오승환이 함께 만든 이 책은 오승환이 열한 살 때 운명처럼 야구를 만난 순간부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들을 담담하게 담았다. 왜 야구를 시작했는지, 역경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과 자기관리 방법, 해외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까지 그간 오승환이 노력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2015 상반기 스타들의 자서전 특징에 대해 반디앤루니스 도서팀 비소설 분야 MD 양상융 대리는 "기존의 유명인의 저서는 그가 무명에서 스타가 되기까지의 일대기 또는 그간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집 위주로 출간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팬이 아닌 일반 대중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자전 에세이가 주로 출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만화 인생 40년 허영만 화백

펜으로 담은 215편 팬 위해 또 그린다



7월 19일까지 '허영만 전…' 전시회
최근 새 작품 '커피 한잔 할까요' 출간
'식객' '타짜' 등 영화, '각시탈' 드라마로
취재 꼼꼼히… "차기작 주제는 돈"

"저는 항상 2등이었습니다. 이제는 어깨를 겨루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서 1등처럼 보이는 거죠." 40년간 무려 215편의 만화를 그린 허영만 화백은 만화가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지금도 여전히 겸손했다. 그의 40년 만화 인생을 맞이해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허영만 전-창작의 비밀'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그의 작품 '각시탈' 원화를 새롭게 복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또한 그는 여전히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고 새 만화 '커피 한잔 할까요?'(예담)로 다시 팬들을 찾았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식객'을 그렸던 그가 이번에는 커피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커피를 안 마시는 그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공부하고 취재에 매진했다. '커피 한잔 할까요?'의 책 뒤에는 그가 카페 곳곳을 찾아다니며 커피 만드는 모습 등을 적어 놓은 취재기가 담겨 있다. 그는 실제 늘 취재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허영만 화백은 지난달 28일 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화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며 "공부하다 보니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부터 공부하면서 그렸기에 독자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했다. 허영만 화백의 작품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다. IMF 이후 본격적인 악녀가 등장하기 시작한 드라마 '미스터 Q', 영화와 드라마로 모두 만들어진 '식객'과 '타짜', 정우성과 고소영을 스타로 만든 영화 '비트', 한국형 슈퍼히어로를 표방한 드라마 '각시탈'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이렇듯 만화 역사에 큰 획을 그어 나가고 있는 허영만 화백은 자신이 걸어온 40년의 과거보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 흥분했다. "'나는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허영만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선보이고 싶어요.. 차기작 주제는 돈입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싶습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1000만권 돌파

세계 13번째… 올해로 개관 70돌
"발간 5년 된 책 디지털화 목표"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서 1000만권을 돌파했다. 사진은 보존서고.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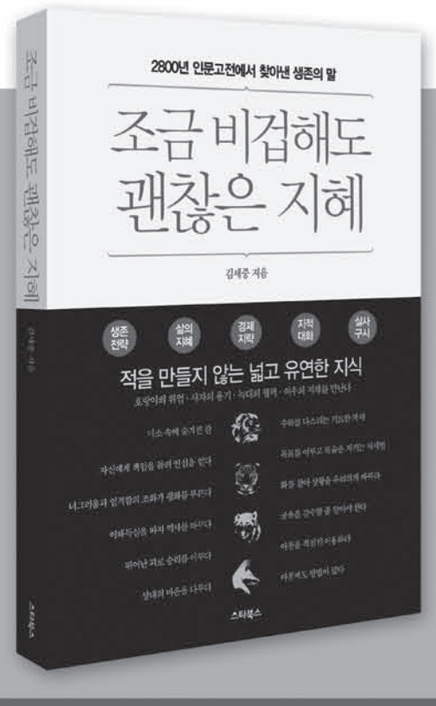
올해로 개관 7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서 1000만권을 돌파했다. 국립도서관으로는 세계에서 15번째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6일 "도서관법상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1000만 장서 달성은 우리나라 문화·학술 분야의 창작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자축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총독부 도서관 장서 28만5000권을 인수해 개관했으며 1988년 장서 100만권을 넘었고 2004년 500만권에 이어 11년 만에 1000만권 시대를 맞게 됐다. 개관 이후 70년 사이에 약 30배 성장한 셈이다. 1000만권은 서가에 꽂으면 길이 235km(1권당 평균 2.35cm)로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경북 김천에 이르는 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000만 장서 시대를 맞이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다. 1000만 장서 중 발간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로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 간 전송이 가능한 250만 권(이 중 45만6000권은 이미 구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다. 임 관장은 "1000만 장서 달성과 개관 70주년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매체의 확산, 모바일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빠짐없이 수집해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인문 고전의 지혜

3000년을 대표하는 인문학의 정수, 동양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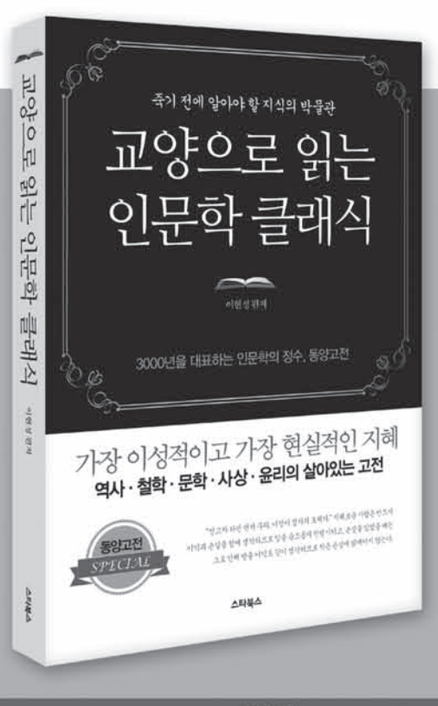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지혜
역사 · 철학 · 문학 · 사상 · 윤리의 살아있는 고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 폭발적인기!

적을 만들지 않는 넓고 유연한 지식
조금 비겁해도 괜찮은 지혜
김세중 지음 | 153X220mm | 본문 336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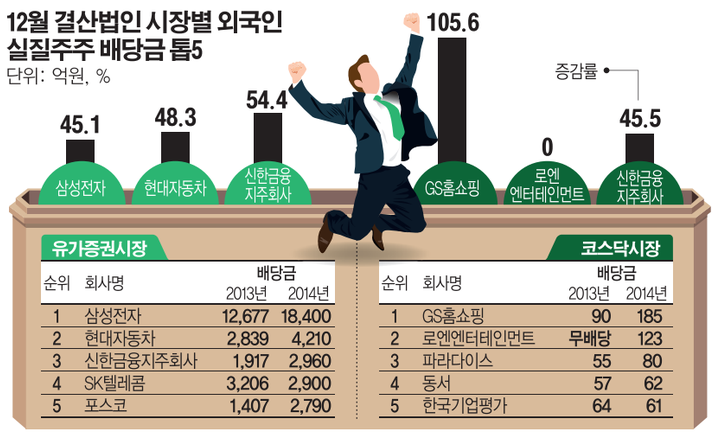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의 용광로
교양으로 읽는 인문학 클래식
이현성 편저 | 153X224mm | 본문 352쪽 | 값 15,000원



스타북스 starbooks22@naver.com

상장사 현금배당 15조 삼성전자·현대車 '선봉'

정부 확대정책에 총 28% ↑
'빅2' 두 업체는 50%나 늘려
외인은 6조 챙겨 30% 증가
대형법인 배당 증가가 원인



유가증권시장

순위	회사명	배당금 2013년	배당금 2014년
1	삼성전자	12,677	18,400
2	현대자동차	2,839	4,210
3	신한금융지주회사	1,917	2,960
4	SK텔레콤	3,206	2,900
5	포스코	1,407	2,790

코스닥시장

순위	회사명	배당금 2013년	배당금 2014년
1	GS홈쇼핑	90	185
2	로엔엔터테인먼트	무배당	123
3	파라다이스	55	80
4	동서	57	62
5	한국기업평가	64	61

지난해 정부의 배당 증대 정책에 힘입어 상장사의 절반이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배당금 역시 약 15조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외국인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역시 6조원을 뛰어넘으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신한금융지주 등은 전년보다 배당을 50%가량 확대하며 배당 증대 추세에 힘을 실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현금배당 회사수는 944개사로 전년 대비 52개사가 증가했다. 상장법인 1761개사의 53.6%가 배당금 지급을 실시한 것이다. 실질주주에게 지급된 총 배당금은 15조4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배당금은 485개사, 14조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개사, 28.5%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배당금은 459개사, 9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개사, 21.6% 확대됐다.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실질주주 배당금 지급 규모와 연말주가지수 등락을 비교해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주가지수가 1916P로 전년 대비 4.7% 하락한 반면 배당금은 14조4671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주가지수가 543P로 8.8% 상승한 것 대비 배당금 지급규모는 9565억원으로 21.6% 증가했다.

배당을 받은 외국인 실질주주 역시 증가했다.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인 실질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수는 940개사로 전년 대비 57개사가 증가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6조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배당금은 5조9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배당금은 1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 증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형법인 위주의 대폭적인 배당금 증가가 외국인 배당규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진 빼는' 펀드 가입 빨라진다

금융위, 서류·확인절차 간소화
인수 증권사 '수요 예측' 참여도

금융당국이 펀드 가입시 작성해야 하는 자필서류와 정보 확인 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인수 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업계, 금투협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자필 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해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3분기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증권사가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증권사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되 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이해 상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도 허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존에 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 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어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라는 판단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ETN시장 개설 6개월 하루 거래대금 70배 ↑

ETN(상장지수채권) 시장 개설 6개월 만에 거래대금이 70배가 넘게 증가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N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5.4~5.13) 77억7000만원으로 시장 개설 초기(2014년 11월) 1억1000만원보다 71배 급증했다.

ETN 상장종목 수는 시장 개설 당시 10종목에서 6개월 만에 18종목으로 늘었다. 상품 종류도 △해외 주식형(미국 바이백·인버스 유로스탁스) △원자재형(인버스 WTI원유·브렌트원유) △바스켓형(국내 Top5·차이나15) △ETF 재투자 등으로 다양해졌다.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자 개인투자자의 ETN 시장 참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개인 거래 비중은 시장 초기 50.1%에서 5월 들어 57.2%로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 참여 계좌수도 같은 기간 100개에서 203개로 약 2배 늘었다.

개인 거래비중이 높아진 데는 ETN 수익률도 한몫했다. 최근 1개월 국내 주식형 펀드(ETF포함) 및 ETN 수익률 상위 20개 중 3종목은 ETN이 차지했다.

코스피 대형주 중 변동성이 높은 10종목에 투자하는 'octo Big Vol'은 수익률이 9.38%을 기록했다. 'octo WISE배당' 4.31%, '대우 로우볼' 4.08%, 'able Quant 비중조절' 2.35%, 'TRUE 코스피 선물매수 콜매도' 1.64% 등은 코스피200(-0.18%)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조병인 거래소 상품시장운영 팀장은 "앞으로 해외 투자수요 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금 투자, 어렵지 않아요"

키움증권은 오는 5월 2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여의도 키움파이낸스빌딩 2층 교육장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금시장 전망'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한국거래소(KRX)의 황선구 팀장이 'KRX 금시장 현황, 주요 거래제도, 시장 참가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5월 20일까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90명)으로 받는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성SDS '이재용 지분' 당분간 안풀릴 것"

보호예수 해제 아직은 '잠잠'
NH투자證 "주가 상승 기대… 상속 개시해야 처분 나설 것"

삼성에스디에스의 대주주 일가가 단기간 내에 지분을 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에스디에스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60.6%의 보호예수기간(상장 후 6개월)이 지난 1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주주일가 지분 19.1%의 매각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분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상속세 재원 마련과 대의 명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은 상속 개시"라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뉴스 보도상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회복 중에 있어서 아직 매각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삼성그룹의 위상, 관행상 단기간 내 삼성에스디에스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성장으로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삼성에스디에스를 현시점에서 서둘러 처분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6조원을 상회한다"며 "5년간 연부연납해도 배당소득(2014년말 2200억원)만으로는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보유지분과 상속지분 일부의 매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스디에스와 관련해 김 연구원이 제시한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대주주 지분매각 △삼성전자와 합병 △대주주 지분 담보대출 등이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데 대한 삼성에스디에스 비지배주주(41.2%)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이 아닌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지배주주(70.8%)들이 높은 밸류에이션 지불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병을 통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지만 상속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삼성전자 비지배주주들의 반발이나 매수청구권 행사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봤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미래에셋 '타이거 ETF' 포효

올해들어 순자산 1조원 증가
55개…총액 4조6537억 급성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TIGER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이 1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올 들어 국내 ETF운용사 중 가장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IGER원유선물 ETF'가 2224억원 증가했고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중국소비테마ETF'도 1138억원이 늘어나는 등 40여개의 미래에셋ETF가 순자산 증가를 보이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TIGER ETF 순자산 총액은 4조6537억원 규모로 ETF 개수는 총 55개다. 이 가운데 연초 이후 증감액은 1조201억원 늘어난 것.(기준일: 2015.5.14)

미래에셋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ETF의 지수형, 인버스, 레버리지 유형부터 헬스케어, 커머디티, 생활소비재 등 섹터ETF까지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 성과도 우수하다. 국내 ETF 전체의 3년 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가 TIGER ETF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료,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같은 생활소비재 관련 지수에 투자하는 'TIGER생활소비재 ETF'는 3년 수익률 98.09%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장기 트렌드인 고령화 관련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TIGER헬스케어'가 94.17%, 'TIGER경기방어'가 79.4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김경아 기자 kakim@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 www.segerotv.com 〉 스마트폰 청취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



25개월만에 8억 3천만원 벌다 – 필명: 금융강국
수익금으로 집을 사다 – 필명: 집사자

◉ 2015년 국가 소비자중심 대상 수상! – 동아일보 선정!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 김원기 대표
주제 : 바이오 & 신기술주에 투자하라!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2~3시
장소 :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혜택 : 무료회원 가입시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안됨

문의 : 02-336-2226

김원기 지음 I 248쪽
글로벌북스 I 값 14,000원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카타르시스!

내가 사는 복잡한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주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제 본 드라마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시시한 기분이 든다. 곧 색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만 금방 지식에 한계가 오는 듯하다.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 수준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금세 막막해져온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편(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과 현실 너머 편(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은 방대한 지식 분야를 마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단순하게 구조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채사장 지음 I 376쪽
한빛비즈 I 값 16,000원

종합 베스트셀러
현실너머편 절찬리 출간

문의 : 02-2128-8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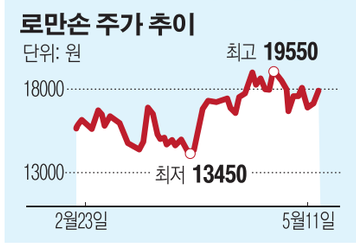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제이에스티나 인기에… 로만손 中 역직구몰 오픈

쇼핑 편의 위해 알리바바 자회사 알리페이로 결제·배송
오늘 가오픈… 시계·주얼리·핸드백·화장품 등 직접 판매
中 백화점 잇단 입점… 온·오프라인 두 토끼 잡기 나서





로만손이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인들을 위한 역(逆)직구 사이트를 오픈한다.

한국산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직접 로만손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국 오프라인 시장 공략과 함께 온라인 시장 강화를 통해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5일 로만손 관계자는 "오늘 중국인들을 위한 역직구 사이트를 가오픈한다"며 "한 달 정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만손은 역직구 사이트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시계, 주얼리, 핸드백, 화장품 등을 직접 판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알리라바 자회사인 알리페이와 손을 잡았다. 알리페이 이패스는 중국에 있는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가 결제를 처리하고 금액을 국내 쇼핑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안화에서 원화로 바꾸는 과정도 알리페이가 진행한다. 이후 해당 쇼핑몰은 중국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알리페이가 보유한 시설에 전달하고 이곳을 거쳐 중국 고객들에게 배송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소비자들 해외직구 시장이 42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5~10%만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중국 직판시장만 연 2조~4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란 얘기다.

로만손은 이번 역직구 사이트 오픈 등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 신세계-다이마루백화점에 제이에스티나가 들어갔고, 상하이 베이징에 추가로 매장을 열 계획이다.

김기문 로만손 회장도 "중국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서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 젊은 소비자의 80%가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본토시장에서 현재의 양호한 반응은 내년 이후 매장 확대 본격화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 회사가 국내 인바운드중국 관광객으로부터 거뒀던 성과를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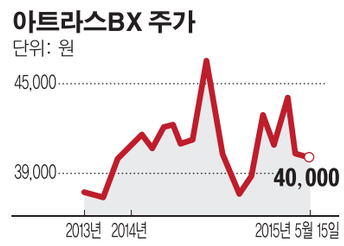
서 연구원은 이어 "하반기 시작되는 제이에스티나 레드 화장품과 패션소품 매장 확대도 아이템 확대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가치투자' 대명사 한국밸류운용 실적악화 아트라스BX 러브콜 왜

47만1482주…5.15% 매수
대규모 증설에 1분기 주춤
향후 매출 상승 기대감 커

공시돋보기



아트라스BX가 '가치투자'의 대명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국밸류운용)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밸류운용은 지난 13일 아트라스BX의 주식 47만1482주(5.15%)를 사들였다. 취득 단가는 4만744원으로 단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아트라스BX 측은 밝히고 있다.

아트라스BX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 계열사로 1944년 설립됐다. 지난 1977년 한국타이어에 인수됐으며 1994년 코스닥상장에 상장했다. 국내 축전지 시장 점유율 2위 기업(2013년 기준)으로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31.1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트라스BX는 안정적인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타이어그룹의 '숨은 알짜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올해 한국타이어가 KT렌탈 인수전에 참여할 당시 아트라스BX를 공동인수자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아트라스BX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8.5% 감소한 115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실적 부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것이기 때문.

아트라스BX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66억원을 투자해 전주 공장을 증설했는데 설비 투자로 인한 영업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하석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트라스BX의 경우 캐파(CAPA) 증설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원재료 가격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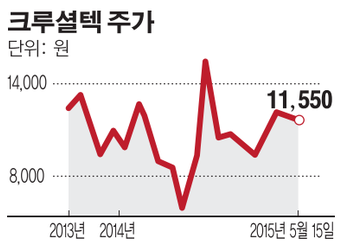
실제로 전주 공장 증설로 전주공장의 축전지 생산능력은 330만 대에서 660만 대로 두 배 확대됐다.

이에 한국밸류운용 뿐만 아니라 KB자산운용, 페트라주자자문 등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아트라스BX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선영 기자 moon@

크루셜텍, 3년만에 흑자전환

1분기 매출 281억·84% 증가



크루셜텍은 15일 올해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281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3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주력 제품인 BTP(Biometric TrackPad)의 최근 매출 급증이 전체 실적을 견인으며 BTP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이익개선 효과가 흑자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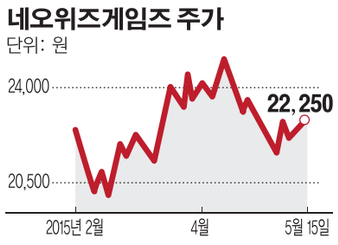
특히 BTP만 놓고 보면 2014년 1분기 매출액 44억원에서 올해 175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성장했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매 분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사들과 진행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현재 양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급격한 외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네오위즈게임즈, 카지노게임 진출 '잭팟' 노린다

동남아에 '시스타카지노' 공개
웹보드 게임 규제 돌파구 마련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네오위즈게임즈가 3조원 규모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에 진출하며 신성장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동남아 지역에 '시스타카지노'라는 브랜드를 공개했고 향후 최대 시장 규모인 북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구글과 앱스토어에 '시스타카지노(SEASTAR CASINO)'를 공개한게 맞다"며 "대대적인 마케팅 보다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 지역에 시스타카지노가 공개됐으며 향후 북미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2월 웹보드 게임 규제가 시행되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며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시스타카지노 류의 소셜카지노 게임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북미 소셜카지노 시장이 지난 2013년 1조8000억 원 규모를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웹보드 시장과 비교하면 약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시장의 규모를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도 이 시장에 주목, 상반기 중 북미 등 주요 지역에 소셜카지노게임 정식 출시(하드론칭)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온라인 웹보드 시장에서는 NHN엔터에 이은 업체 2위로 모바일 웹보드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4월 기준, 주력작품인 피망 포커의 구글 매출순위가 1월 평균 70위에서 40위로 올랐으며, 피망뉴맞고 또한 1월 평균 60위에서 45위 수준으로 매출순위가 상승했다. 오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소셜카지노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여기에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진을 씻어내고 2015년을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 중인 온라인 게임 '블레스'와 '애스커', '아이언사이트' 등 기대작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출시한 '블랙스쿼드'의 매출 가시화를 이뤄내고, 모바일 게임에서도 10여 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의 자회사 바이두모바일게임과 모바일 RPG '핑거나이츠'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12일 장중 2만4750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후 주가는 다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며 지난달 9일 장중 2만 4240원까지 올랐다.

유진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소셜카지노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동성홀딩스, 자회사 제네웰 중국간다

대표 제품 메디폼 등 수출
올해 실적 20% 상승 예상

동성홀딩스는 자회사인 제네웰이 올해 큰 폭의 사업 실적 향상과 더불어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 및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제네웰은 창상피복제인 '메디폼'과 유착방지제인 '가딕스'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203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달성했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액 260억원, 영업이익 65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약 20%에 이르는 성장성까지 갖춘 회사로 평가된다.

제네웰은 향후 소비재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대표 제품인 메디폼과 함께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부문의 제품 출시와 시장확대를 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2016년까지 중국지역의 매출비중을 전체 매출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후 유럽과 일본, 중동, 중남미 등 추가적인 지역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비중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동성홀딩스 관계자는 "제네웰은 기존의 제품군 외에도 B2C 시장을 겨냥해 화장품과 의약분야가 융합된 코스메슈티컬 부문 및 고기능성 복합지혈제 등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며 "2016년도 상반기까지의 단기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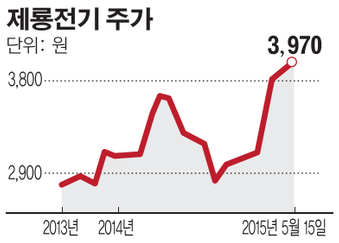
이어 "성형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및 신경외과 등 기존 제품을 포함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ESS 입찰 참여" 제룡전기, 사업목적 추가

〈에너지저장장치〉

한전 주관 'FR용 ESS 구축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주총소집



제룡전기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룡전기는 이사회를 열고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다음달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기존에 제룡전기는 변압기 생산만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목적 추가는 한전이 주관하는 '2015 주파수조정(FR)용 ESS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해당 기업이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룡전기가 참여 의사를 밝힌 FR용 ESS 구축 사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부하변동에 즉시 반응하도록 발전력을 조정하는 주파수 조정을 ESS가 대체하도록 한 기술이다. ESS는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충전)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방전)하는 시스템이다.

한전은 올해 FR용 ESS 시장 규모를 200㎿, 투입되는 사업비를 1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52㎿급으로 600억원 대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규모를 키운 것이다. 입찰건수도 지난해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각 4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각각 9건씩 총 1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이달 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15년 FR용 ESS사업 공청회'에서 올해에는 1개사 1개 물량을 원칙으로 유찰시 1개사가 중복 낙찰받는 비경쟁적 방식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ESS에 대해 기업들이 경험을 넓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찰 기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대 18개 기업이 ESS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제룡전기 역시 특별한 유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신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ESS 사업을 위해 공사업도 영위할 계획이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한 한전의 공식 입찰 요건이 이달 말 나오고 입찰은 7월 초·중순에 이뤄지는 만큼 시일이 급박한 면이 있다"며 "우선 올해는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전문업체와 하청 계약을 맺는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양수 신용등급 영향 없다"

한신평 "사업상 시너지 긍정적"

한국신용평가는 15일 파라다이스가 그룹의 실질적 지주사격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부산 카지노를 양수하는 것과 관련 현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상 시너지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신평은 파라다이스와 지주회사의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신용등급을 각각 'AA-(안정적)', 'A+(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신평 관계자는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부산카지노 사업을 양수함에 따라 파라다이스는 계열사에 분산됐던 카지노를 통합해 운용하고 마케팅을 일원화 해 시너지를 창출, 이는 사업상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가액이 1200원 규모로 추가 차입이 필요 없어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인 점을 반영할 때, 이번 인수가 파라다이스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파라다이스글로벌이 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로서 신용도가 그룹 주력회사인 파라다이스의 신용도와 지분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번 사업 양도가 파라다이스글로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티케이케미칼, 700억 투자 스판덱스 생산라인 늘린다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티케이케미칼이 스판덱스부문 사업확대를 위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판덱스의 고기능성 제품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증설은 700억원이 투자된다. 증설 규모는 1만여 톤이다.

티케이케미칼은 기존 구미공장 내에 이번 증설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해 스판덱스 생산능력을 연간 약 3만3000여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티케이케미칼은 이번 증설투자를 통해 지난해 출시한 '아라크라 S-1000' 수준의 고기능성 제품생산이 가능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다. 향후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스판덱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통한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된다.

김해규 대표이사는 "지난 3월말 단행한 폴리에스터부문의 공장 합리화 작업에 이어 금년도 중점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전면적인 사업재편의 연장선에서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망한 스판덱스에 대한 설비투자를 결정했다"며 "고품질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공급 및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폭염보다 먼저 기회가 왔다!

올 여름 예고된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진정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시원한 혜택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